

청.장년 성경공부

마태복음

제자도의 입문서

Made possible by your gifts to the Mary Hill Davis Offering® for Texas Missions
텍사스 선교를 위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리 힐 데이비스 헌금으로 이루어진 성경공부교재입니다

<학습 공과>

글쓴이 : Julie Brown Wood (줄리 프라운 우드)
Phile Lineberger (필 린버거)
Bob DieFoor (밥 디푸어)
Ronny Marriott (로니 매리어트)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마태복음, 제자도의 입문서

판권소유 © : 2012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역성경, 1961년 에서 했습니다.

BAPTISTWAY PRESS® Management Team

Director, Education/Discipleship Center: Chris Liebrum

Director, Bible Study/Discipleship Team: Phil Miller

Publisher, BAPTISTWAY PRESS®: Ross West

한국어 집필위원

마태복음, 제자도의 입문서 (1과 ~ 5과, 11 ~ 12과)

채봉수 (뉴송 침례교회, 달라스)

마태복음, 제자도의 입문서 (6과 ~ 10과)

새누리침례교회, 달라스

마태복음, 제자도의 입문서 (13과, 성탄절 부록)

김훈희 (하나님의 꿈의 침례교회, 휴스턴)

총편집: 최승오 (새누리침례교회, 달라스)

한국어 집필 팀장

팻 에컨 (Pat Ekern), BGCT 교회건축센터,

초판 : 2012년 9월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는 교육 방법을 택하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해도 좋다. 각 방법은 실제로 도움을 주고, 가르칠 준비를 위해 곧바로 유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각 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정해진 그룹 성경공부 시간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이 책을 공부한다.
2. **‘수업계획’** 내용을 훑어본다. 목차와를 훑어보고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전체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공부하게 될 내용의 머리말을 복습한다.
3. **‘주제’**와 **‘탐구질문’**과 **‘학습목표’**를 숙고하면 각 장마다의 중심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4. 당신의 성경책을 사용하여 각 장의 성경본문을 기도하며 숙고하라. 각자 본인의 성경책을 사용함으로 참가자들에게 성경공부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각 과의 **‘학습계획’**과 **‘수업계획’**들은 저자마다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든지 자유롭게 비교하면서 사용하라.)

5. 성경말씀을 먼저 읽은 후에 **‘수업계획’**에 나와 있는 **‘성경주해’**를 참조하라.

(각 장의 지은이들은 각 장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성경본문을 채택했다. 물론 당신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본문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4. 각 장에 주워진 성경말씀을 읽은 후에, 당신의 성경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의 본문 해석을 읽는다.
5. 각 장에 주워진 작은 기사 - “참고” - 를 읽는다. “참고”는 추가적이고 주석적인 내용과 성령의 영감으로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도 도와줄 것이다.
6. 각 장에 주워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주어진 질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생각과 적용점을 제시할 것이며, 그룹 성경공부시간에도 사용될 것이다.

온라인 성경주석. 좀더 자세한 연구를 위한 온라인 성경주석이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짐 데니슨 박사가(The Center for Informed Faith 회장, 텍사스주총회 신학자) 저술 했습니다..

1-866-249-1799 로 전화하거나 baptistway@texasbaptists.org 로 e-mail 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전자포맷(PDF) 파일만 가증합니다. 개인용으로는 6불이고, 5명이 그룹으로 사면 25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무료 배송에 관련된 정보를 원하시면 1-866-249-1799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인도자 지침서. 더 자세한 인도자 지침서를 원하시면 1-866-249-1799 로 전화하셔서 PDF 파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주문은 5불, 다섯 명이 그룹으로 사면 20불입니다.

www.baptistwaypress.org 에서 **무료 성경공부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습 공간 저자들

줄리 브라운 우드는 1과에서 3과까지의 저자이며, 하딘 시몬스 대학과 남서부침례신학교를 졸업했다. 그녀는 텍사스 잭슨빌에 있는 중앙침례교회의 목사인 남편 다린 우드 박사와 함께 목회하는 것을 좋아한다. 슬하에 아들 조슈아가 있다. 그녀는 어린이사역자와 예배인도자로서 섬겼었고, 지금은 자유기교가와 잭슨빌 교육구 합창단의 피아노 반주자로 섬기고 있다.

필 린버거는 4과에서 8과까지의 작가이고, (이전에 윌리엄 트레이스 침례교회로 알려진) 텍사스 슈가랜드 소재의 슈가랜드 침례교회의 목사이다. 필은 브렌다와 결혼하여 세 명의 딸과 아홉 명의 손주들을 두고 있다. 그는 텍사스 주 침례교총회의 회장, 윌리엄 지웰 대학과 달라스 침례대학의 위원으로, 카튼보울 운동협회의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밥 디푸어는 켄터키 해로스버그에서 살며, 9과와 10과, 그리고 크리스마스 과목을 집필하였다. 디푸어 박사는 켄터키와 조지아에 교회들에서 40여년을 목사로 섬겼으며, 최근에 은퇴하기까지 28년 동안에는 해로스버그 침례교회의 목사로서 섬겼다. 밥과 그의 아내 샌디는 조지아 태생이고, 둘 다 베일러 종합대학을 졸업했다.

로니 메리엇은 11과에서 13과를 집필하였으며, 또한 이 과목들의 장년 성경공부 지침에 있는 “교수계획”들을 집필하였다. 메리엇 박사는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는 제일침례교회의 목사다. 그는 남서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태복음: 제자도의 입문서

학생용 공과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3
학생용 공과의 저자들.....	5
마태복음: 제자도 입문서 소개	8

학습 일자

1단원.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배우기

1과 _____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12 마태복음 1:18-2:15, 19:23
2과 _____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요한에게 침례를 받다.....19 마태복음 3장
3과 _____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26 마태복음 4:12-22

2단원.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기

4과 _____	제자의 구별된 삶.....33 마태복음 5:1-16
5과 _____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수님의 해석대로 살기.....39 마태복음 5:17-48
6과 _____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보여라 - 그런 방식이 아님.....45 마태복음 6:1-18
7과 _____	하나님을 믿고 걱정을 멈춰라.....51 마태복음 6:19-34
8과 _____	올바른 선택을 하라.....56

3단원. 참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9과	_____	제자도의 근본 본성을 마주하라.....62 마태복음 8:18-22
10과	_____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들.....68 마태복음 9:35-10:15, 24-31
11과	_____	믿음은 따르는 것이다.....74 마태복음 16:13-17, 21-26
12과	_____	참되어라, 은혜를 보여라, 겸손하라.....80 마태복음 23:1-12

4단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

13과	_____	제안이 아닌 명령.....86 마태복음 28:16-20
성탄절	_____	베들레헴으로 가보자.....91 누가복음 2:1-20

소개

마태복음, 제자도의 입문서

제자도의 핵심?

“입문서”는 기초과정 교과서다. 마태복음이 기초과정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의미하신 추종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설명서로서 마태복음의 유용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마태복음의 주요 목적은 제자도에 대한 소개다.

오늘의 교회에도 이와 같은 책이 필요하고 제자도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있을까?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너무 느슨해지고 너무 많은 실체와 행동에 적용되어서 어떤 것들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의심스러운 것들도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한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구원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나 종종 잘못 안내되어 미신적 방법으로 이야기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돌보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제자도의 우선순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갈 즈음에 히틀러에 의해 순교당한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회퍼는 자신이 쓴 기독교의 가치라는 책에서 기독교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가르침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본회퍼가 매우 설득력 있게 쓴 것처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이고,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¹ 본회퍼는 “값싼 은혜”를 “제자도가 없는 은혜”²라고 정의하였다. 본회퍼의 기독교의 가치는 참된 제자도로 인도함에 있어서 마태복음에 의존하고 있다.

침례교 작가인 달라스 윌라드는 자신의 책 거룩한 음모에서 마태복음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거룩한 음모에서 윌라드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교육 과정”이라고 썼는데, 분명히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³ 제자도에 대하여 이러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 배우는 과정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는 “당신이 어린이나 어른이 자전거를 타거나 혹은 수영을 하도록 가르칠 때, 그들은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한다...당신은 그들에게 단지 자전거를 타야만한다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⁴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을 포함한 성경의 제자도에 관하여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마태복음의 학습은 진정한 마태복음의 학습이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그렇지만 이번 학습을 위해 선택된 복음은 특별히 제자도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번 학습은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인 제자도에 초점을 맞추도록 의도되었다. 이번 학습은 마태복음이 정말로 “제자도의 입문서”라는 것을 보도록 용기를 줄 것이다.

게다가 가능하다면 분명히 하자면, 당신은 이번 학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만 한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좋을 것이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으면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들은 배우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이번 학습의 의도이다. 오히려 이번 학습의 의도는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도는 당신이 교회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실제로 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이번 학습은 어떻게 개발되었는가?

1단원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배우기”는 마태복음 1-4장까지 3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처음 두 과목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은 따를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과 침례를 다룸으로써 마태복음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과는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다룬다.

2단원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기”는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는 다섯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목들을 통해서 산상수훈⁵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5-7장의 예수님의 “제자도의 강론”을 배우게 된다.

3단원 “참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은 제자도의 본질을 분명하게 해주는 가르침들을 제공한다. 이 단원에 있는 네 과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의 본질을 지목하여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8-16장에서 선택된 본문을 다루고 있다.

4단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는 마태복음 28:1-20절의 “제자를 만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다루는 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원.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배우기

1과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18-2:15, 19:23
2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요한에게 침례를 받다	마태복음 3장
3과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	마태복음 4:12-22

2단원. 예수님께서로부터 배우기

4과	제자의 구별된 삶	마태복음 5:1-16
5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수님의 해석대로 살기	마태복음 5:17-48
6과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보여라 - 그런 방식이 아님	마태복음 6:1-18
7과	하나님을 믿고 걱정을 멈춰라	마태복음 6:19-34
8과	올바른 선택을 하라	마태복음 7:1-27

3단원. 참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9과	제자도의 근본 본성을 마주하라	마태복음 8:18-22
10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들	마태복음 9:35-10:15, 24-31
11과	믿음은 따르는 것이다	마태복음 16:13-17, 21-26
12과	참되어라, 은혜를 보여라, 겸손하라	마태복음 23:1-12

4단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

13과	제안이 아닌 명령	마태복음 28:16-20
-----	-----------	---------------

-
1. 디트리히 본회퍼, 제자도의 가치(뉴욕: 사이먼 & 슈스터, 터치스톤 북, 1995), 63-64
 2. 본회퍼, 제자도의 가치, 47
 3. 달라스 윌라드, 거룩한 음모: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숨겨진 삶을 재발견하기(샌프란시스코: 하퍼 샌프란시스코, 1998), 311
 4. 윌라드, 314, 원본의 이탤릭체
 5. R.T.프랑스,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새로운 국제적 해석(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윌리엄 에드만스 출판사, 2007), 마태복음 5:1-7:29소개를 보라.

1단원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배우기

1단원, “예수님은 누구인가”는 마태복음 1-4장까지 3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처음 두 과목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은 따를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과 침례를 다룸으로써 마태복음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마태복음의 주제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을 따를만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3과는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다룬다.

1단원.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배우기

1과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18-2:15, 19:23
2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요한에게 침례를 받다	마태복음 3장
3과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	마태복음 4:12-22

[제 1 과]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1:18-2:15, 19-23</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1-2장</p>	<p>학습주제 예수님 탄생의 배경은 그 분이 메시아이고 그러므로 제자가 될 만큼 존귀한 분임을 보여준다.</p> <p>탐구질문 예수님 탄생의 배경은 그분이 어떻게 제자로서 따를 만큼 존귀한 분 인지를 보여주는가?</p> <p>학습목표 예수님이 탄생한 배경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를만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한다.</p>

들어가기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탄생은 모든 사람이 경배하고 따르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약속된 분이심을 증명하는 예언을 성취하였다.

마태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준비되고 효과적인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썼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타고난 권리로 시작하고(마 1장), 지상대명령(마 28:19-20)으로 이어진다. 예수님이 경배 받고 따를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 분의 기적적인 시작 때문이다.

놀라워라! (1:18-25)

마태는 1장의 첫 부분을 예수님의 인성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그 분의 신성을 확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1-17절은 성경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나타낸다. 마태가 살던 1세기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 청중은 남성 중심이었고 그래서 마태가 왜 요셉의 경험들을 진술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하려는 구약성경의 인용도 독자들의 유대인 전통에 호소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1:18)은 부모님들에 의해 정해지고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혼전 계약이다. 비록 이 기간 동안에 동거나 동침이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었다. 약혼 기간에 한 쪽이 죽으면 다른 쪽은 미망인으로 간주되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정도 되면 공식적인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신이 여자와 성적 관계를 갖는다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이방의 전설과 예수님의 임신을 대조하기 위하여, 마태는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구별하였다. 예수님의 임신은 초자연적이며 동시에 자연적인 것이고, 이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셉은 분명히 죄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성실했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려고 했다(1:19). 유대 율법은 요셉에게 마리아를 간음죄로 공개 재판하도록 요구한다; 대신에 그는 그녀의 치욕과 사형(레 20:10)을 면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불성실하다고 믿었던 여인과 결혼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이혼하려고 계획하였다. 이런 법원 밖에서의 합의는 단지 두 명의 증인 앞에서 그녀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정절을 확증하고 결혼을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유는 그녀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마 1:20-21). 아기의 이름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의 “예수” (히브리어로 예슈아/여호수아)라고 한 천사의 선언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한 것인데,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이 영적으로 화목하게 될 것을 보여준다(26:28절을 보라).

성경의 예언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보일 수 있다. 예언은 과거를 설명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22-23절에서 마태는 구약의 많은 완성된 인용 가운데 첫 번째로 이사야 7:14절을 인용하고 있다. 이사야는 자기 예언에 대하여 아마도 아하스왕에게 처녀 또는 시녀(히브리어로 알마)가 아들(아마도 히스기야)을 낳아줄 것이라는 약속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이사야 당시에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으나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된 것이었다. 히브리어 “임마누엘” (마 1:23)에 대한 마태의 해석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확인해주었다.

아기에게로 가는 길은 어느 쪽인가? (2:1-11)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의 방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마태는 그 가족이 “집” (2:11)에 있다고 했고, 그러니 예수님은 더 이상 말구유에 있지 않고 보다 영구적인 집에 있었다. 전통적으로 이 방문객들은 12일 뒤인 1월6일, 즉 많은 성도들이 축일로 기념하고 있는 날에 도착했다(소제목의 “크리스마스가 여기에 - 또는 저기에”를 보라). 다른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본 것에서부터 경배를 위해 도착하기까지는 1-2년 정도 지났을 것으로 믿기도 한다.

BC 37-4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왕은 역사에서 영리한 외교관, 탁월한 행정가로 기록되고 있는데, 훌륭한 가뭄 구제책을 내놓았고 대규모 공공사업 계획을 제공했다. 반은 에돔인이고 반은 히브리인인 그는 자신을 유대주의를 좇는 사람이라고 주장했고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동정을 베풀었다. 그는 자신의 유대주의를 증명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축했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욕심은 망상이 되어버렸다.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고 자신을 타도하려는 음모를 두려워하여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헤롯의 아들(그리스어 휘오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그리스어 히스)가 되겠다는 말을 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편집증으로 인해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질문하는 것을 들었을 때, 당황하였다(2:3).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그리스어의 표현은 다급한 고통과 혼란스러운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헤롯은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의 반응과 유대인 경쟁자에 대한 로마의 양갈음조차 두려워하였다. 동방박사의 질문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했다: (1)헤롯은 단지 임명되었을 뿐이지만 “나신”은 합법적인 왕족의 혈통이라는 것이고; (2)“계시뇨”는 예수님이 이미 유대인의 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 헤롯을 위협을 느꼈다. 동방박사들이 비록 예수님의 신성을 암시하지는 않고 다만 경의를 나타내려는 소망을 표현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헤롯은 위협을 느꼈다.

천상의 어떤 현상은 일반적으로 위대한 사람의 탄생이나 죽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별을 관측하여 미래의 사건이나 설명을 결정하는 이방인 제사장인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유대인의 왕에 대한 표시로 받아들였다(메시아적 예언을 보여주는 민 24:17절을 보라). 비록 마태는 구약에서 점성술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동방박사들을 비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그들의 열망과 유대 지도자들의 냉담함과 헤롯의 적대감을 대조시켰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은 히브리인 혈통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방박사를 통하여 “모든 족속” (마 28:19)과 “땅 끝” (행 1:8)에서 온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왕을 경배하고 있었다.

태어나신 왕을 경배하는 것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것이라고 두려워한 헤롯은 대제사장들(일반적으로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주로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전문가로서 가르치며 섬겼던 학자들)을 불러 모았다. 헤롯은 아마도 개별적으로 각 그룹에게 질문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히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고 헤롯도 음모나 속임수를 두려워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한 질문을 다시 묻고 있음을 주목하라. 그는 전문가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냐고 묻지 않고, 메시아의 탄생(마 2:4)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는 다른 누군가가 왕이 될 수 있음을 묻는 것조차 주저하였다.

헤롯의 질문에 대답은 미가서 5:2절에 나오는데, 그 구절을 정확히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예언 혹은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것에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될 만큼 차이점은 사소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마태가 사용한 “목자”의 이미지는 자비심이 풍부한 인도자이며 목자의 돌봄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였다(요 10:11; 히 13:20; 벧전 2:25; 계 7:17절을 보라). 헤롯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지도력은 매우 다른 것이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베들레헴이 있는데, 하나는 북부 이스라엘의 나사렛에서 북서쪽으로 7마일 떨어진 곳인 스불론에 있고(수 19:15),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5마일 떨어진 곳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윗이 태어나고 기름부음을 받은(룻 4:17; 삼상 16:1, 12-13) 이후로 다윗의 도시(눅 2:11)라고 불렸던 남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헤롯은 “가만히” 동방박사들을 자기 처소로 초대하여 유대인 전문가들이 제공한 정보로 그들이 본 별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헤롯은 그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뽀뽀스러운 거짓말로 돌아와서 자기도 경배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2:8).

처음으로 마태는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다(2:9).²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크게 기뻐” 하였다(2:10). 그들은 왕에게는 일상적이었던 값비싼 예물을 드려서 왕이신 아기 그리스도께 경배하였고, 누군가가 왕을 만날 때 동양의 의식이었던 것처럼 머리가 땅에 닿도록 무릎을 꿇었다(2:11).³

이렇게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은 마태가 언급하지 않은 구약 예언의 다른 부분을 완성하였다. 그들의 도착은 이사야서 2:2-4절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750년 전에 예언된 모든 민족의 흐름을 다시 들려준다. 시편 72:10-15절은 “만왕”이 왕 앞에 무릎 꿇어 섬기고, 금을 드린다고 묘사한다. 이사야서 60:1-6절은 열방과 열왕이 “금”과 “유황”을 드린다고 묘사한다. 이 본문들의 문학적 사용은 동방박사들을 왕족으로 구분하는 전설과 노래로 연결되는데, 비록 어떤 축가에서는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선언하더라도, 페르시아의 유대인 공동체에서처럼 그들은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서 페르시아는 그들의 출신지에 대한 이론적 장소인 것 같다.

다시 길 위에서 (2:12-15, 19-23)

동방박사들이 돌아간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에 크게 바뀌었다(마 2:12). 그들은 비록 헤롯의 진의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헤롯에게 알려주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다른 길로...돌아” 갔다. 그들의 고향이 페르시아라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사해 남쪽 끝을 돌아가는 길로 돌아갔을 것이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다급한 지시를 받았다(2:13).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죽이려한다는 계획 때문에, 그는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피해야 했다.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 (2:16)라는 명령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명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지만, 그 선택은 잔인한 행동과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열망을 보여줌으로 인해 자신이 유대주의로

개종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협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은 그 만이 아니었다.

세 명은 즉시 이집트를 향하여 출발했다(2:14). 요셉이 잠들어 있는 아기를 안고 일어나는 것이 놀라운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의 타오르는 열기를 피하여 밤에 여행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고, 이 경우엔 헤롯이 보낸 사람들의 목표가 되는 위험도 있었다. (당시 이집트와의 정확한 경계를 기준으로) 150-200 마일의 여행은 아마도 5일이나 10일이 걸렸을 것이다.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은 선견지명인 것처럼 그들의 여행과 생존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마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호세아서 11:1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었다. 호세아서는 출애굽을 떠오르게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마 2:15). 천사가 요셉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서 그들의 안전함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2:19-21). 천사의 지시는 이전의 것들과 비슷했는데,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2:13, 20)는 이유가 있었다. 요셉의 반응은 동일할 정도로 비슷했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2:14, 21) 갔다. 이집트에서 그들의 망명 생활은 2-4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헤롯은 B.C. 4년에 죽었다. 2:20절의 복수형태인 “자들”은 몇 가지 질문을 갖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태가 예수님의 경험을 모세의 경험과 비교한 것이라고 믿는다(출 4:19절을 보라). 그러나 이것은 헤롯의 고문들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 헤롯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왕국이 분열된 후,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권력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헤롯의 장남인 아켈라우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매우 잔인하였다. 다른 아들인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을 통치했는데, 위협이 될 만큼 위대하게 인식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요셉은 꿈에서의 경고를 쫓아 베들레헴보다는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가족을 데리고 갔다(마 2:22-23).

다시 한 번 더 마태는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이지 않았다.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어떠한 예언도 없지만, 마태는 “선지자들” (NIV)이라고 복수를 사용하였다. 마태는 청중들에게 말을 주고 받기식의 장난을 하였는데(히브리어로 가지와 나사렛은 비슷한 어근을 갖고 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경멸하는 뜻이 담겨있음을 청중들은 잘 알고 있었다(요 1:46; 7:52; 행 24:5절을 보라). 따라서 예수님은 가지(사 11:1; 예 23:5; 33:15; 스 3:8)라고 메시지를 표현한 예언을, 경멸(시 22:6-8; 69:20-21; 사 49:7; 53:2-3절을 보라)을 받음으로 성취하게 될 것이다.

적용 및 실천

기적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였고 그 분이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임신한 마리아가 돌에 맞는 것을 막아주셨고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아기 예수를 보호하셨다. 천사들이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지시와 경고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하늘에 나타난 별은 점성가들의 장대한 여행과 경배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특별하면서도 초자연적인 상황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목적을 알려주었다.

창세기 22:18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예수님이 복이며 그 분의 임무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마 28:19).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오직 마태만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을 기록하였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여자를 포함시키고 유대인이 아닌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중요하고 복음이 제시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롬 3:23)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필요하다. 그 분은 위법과 이방인의 차별에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분이 존귀한 분이심을 믿고 그 분을 따라라.

질문

1. 사회적이며 감정적인 위험을 고려할 때, 당신은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라는 것을 따랐던 것처럼 천사의 지시에 순종할 것인가?
2. 하나님은 성경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부정적인 환경(위법에 대한 의심, 헤롯의 죽이려고 하는 결심)을 사용하였다. 빌립보서 1:6절과 로마서 8:28절로 신앙고백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성취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였는가?
3. 학자들은 대략 헤롯의 명령(마 2:16)으로 20여명의 남자 아이들이 죽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신은 이 비극을 당신의 믿음과 어떻게 일치시키겠는가?
4.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상황 가운데 당신에게 가장 두려움을 느끼게 하거나 경배하도록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당신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어느 누구 보다도 더 예수님을 따를 만 큼 존귀한 분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오늘 배운 것으로 인해 당신은 크리스마스를 더욱 의미 있게 축하하거나 혹은 축하하는 방법에 있어서 변화를 주겠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탄절이 여기에 - 또는 저기에

12월25일은 아마도 예수님의 실제 생일이 아닐 것이다. 그 분은 목자들이 자신들의 양떼를 밤에 돌보는 봄에 태어나셨을 것이다(눅 2:8). 왜냐하면 이 때가 양들이 태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12월에 로마의 휴일인 농신날에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는데, 노동자들에게는 쉬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놀랍게도 서유럽 교회가 크리스마스 축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방인에게는 그리스도의 견본으로 알려진 동방박사들의 도착을 축하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에피파니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신성 혹은 통찰의 모습이 현실 혹은 진실로 드러난 것이다.

[보충]

라시다는 당신이 살고 지역의 커피숍에서 일하고 당신은 그녀와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당신은 때때로 성경을 가져왔고 그녀를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녀는 당신이 손에 성경을 들고 이번 과목에 대하여 읽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가 당신에게 당신은 기독교인이세요?라고 묻는다. 당신이 확신에 차서 대답할 때, 그녀는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고, 좋은 선생님이고, 하나님에 보내신 예언자라고요. 당신도 이런 것들을 믿나요, 아니면 그 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을 믿나요?

당신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당신이 나누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원칙들은 무엇인가?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
-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 죽어서 장사되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심
- 실수가 없으신;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 예언을 완성하심
- 구원과 천국의 영원한 삶을 위한 유일한 길
-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믿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심

¹ 마태복음에서 이 제목에 어울릴만한 유일한 다른 사건은 고난에 나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혹은 이방인의 비방거리로 사용됨이다(마 27:11, 29, 37).

² 그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왕이 수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유명한 찬송에서 보면, 그들은 고향에서부터 별을 쫓아왔다고 오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는 단지 그들이 별이 뜬 것을 보았다고 했을 뿐이다.

³ 세 가지 예물이 드러졌는데, 전통적으로 세 명의 박사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들은 캐스파, 멜카, 그리고 발다살이다.

<p>[제 2 과]</p>	<p>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요한에게 침례를 받다</p>
<p>핵심본문 마태복음 3장</p> <p>배경 마태복음 3장</p>	<p>학습주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는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참된 회개를 베푸는 요한의 소명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확증을 가져왔다.</p> <p>탐구질문 예수님이 받은 침례에 대하여 제자들은 무슨 반응을 보였는가?</p> <p>학습목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은, 침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침례가 제자도와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준다.</p>

들어가기

침례 요한의 사역과 그가 예수님에게 베푼 침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길을 준비하였고, 모든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요청에 응답하는 모범이 되었다.

“디베로 가이사사 ... 열 다섯 해” (눅 3:1)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당신은 그가 입고 있는 옷과 먹는 음식을 봐야 해요. 그는 광야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강에서 침례를 받고 있어요. 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을 들어봤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의 침례 요한은 군중들을 매혹시켰다. 그의 모습에 호기심이 일어난 어떤 사람들은 그를 진기하게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의 옷차림새와 거침없는 말투가 목상을 가져왔다.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를 비난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는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소망의 말을 했다: 약속하신 이가 오신다.

강가에서 (3:1-6)

30년이라는 예수님의 생애를 건너뛰어 마태는 이렇게 시작했다: “그 때에” (마 3:1). 그는 아마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라는 뜻으로 전환점을 만들고 사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열둘 살 때 성전에서 가르쳤던 이야기를 적은 누가를 제외하고(눅 2:41-52), 성경은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장기의 시기는 예수님이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는 있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의 충만함을 드러내지 않는 시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1세기 중반에 성도들은 이미 침례요한이 예수님에 앞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행 13:24).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을 포함하여 너무나 중요해서 모든 복음서 작가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에도 포함시켰다(막 1:1-11; 눅 3:1-22; 요 1:19-34). 요한의 별칭 “침례”는 그의 사역에서 기초 역할이었기 때문에 별명으로 붙여졌다. 마태는 요한을 400년 이상 예언적 침묵이 있는 뒤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교(선포)하는 사람으로 표현하였다. 우연치 않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미리 계획해 놓으셨을까? 요한의 세대는 영적으로 방황하였다(마 15:7-9절을 보라). 그러나 그들의 조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또 다른 약속에 대한 소망이 “가까” 이 와있다.

“유대 광야”는 사해의 서쪽 지역을 포함한다. 목초지로 사용되었는데, 건조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았다. BC 130년부터 AD 70년 까지 옛센이라고 불린 유대인 분파가 쿨란이라는 공동체로 사해의 북서쪽 해안가에 살았다. 고고학의 증거에 의하면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침례의식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엄격하게 헌신하고, 회개와 종말이 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행을 하는 공동체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요한의 신학과 실행 양식이 매우 비슷하여 몇몇 학자들은 그가 그들과 함께 살았을 것으로 믿기도 한다.

약속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위하여 요한은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요청하였다(3:2). 불행하게도 영어로 “회개”는 그리스어인 메타노이테의 뜻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전인격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행동으로의 헌신이 결합된 후회의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롬 12:2절을 보라). 회개는 천국이 “가까웠” 기 때문에 필요하다. 가까이 온 천국 또는 메시아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천국의 새벽을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하는 것으로 표현했다(사 11:1-10; 13:6-9; 겔 30:3; 엘 1-3장; 암 5:18-20; 스 1-3장). 이러한 예언들은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압제를 떨쳐버리고 이스라엘에게 평화, 번영, 그리고 정의가 넘치는 황금기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래서 약속하신 이가 가까이 옴으로 흥분하게 되었다.

마태는 특별하게 구약성경을 사용하였다. 이 부분에서 그는 침례 요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했다(마 3:3). 신명기 18:15-22절과 말라기 3:1절과 같은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위해 “길을 예비” 하기 위한 선구자를 기대했다. 마태와 침례 요한 자신은(요 1:23) 그 역할을 주님을 위해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 라고 해석했다. 이 비유는 오직 왕족이 자신들의 지역을 여행할 때만 길을 보수했었던 문화 속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었다. 회개를 통해 너희 삶 가운데 있는 죄의 구멍들을 채워라, 그래서 주님께서 도착하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사 35:8; 40:3절을 보라)고 요한은 선포하였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행위를 정결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메시아가 직접 정결하게 하시겠지만, 그들은 오시는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들의 마음을 준비해야만 한다.

말라기 4:5절은 예언자로서의 선구자는 “엘리아” 선지자일 것으로 약속했는데, 보통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눅 1:17) 오실 것으로 이해하였다. 요한의 메시지는 엘리아의 열정만 닮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모습도 잘 맞았다(마 3:4). 그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 띠를 둘렀다(왕하 1:8; 속 13:4). 그가 먹었던 메뚜기는 아직도 동양에선 먹고 있는 커다란 것이었다; 아마도 석청은 메뚜기를 약간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이다. 옷과 음식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었지만, 예언자는 물질적인 부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단순하게 삶으로써 요한과 엘리아는, 소유물이 길을 막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훨씬 더 순조롭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마 19:24).

놀랍게도 사람들은 요한의 이상한 차림새와 엄숙한 메시지에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요단강 주변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아마도 신앙 캠프 또는 수련회와 같은 경험이었을 것이다. 군중들은 정신이 산만해 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들을 준비가 되게 하였다. 아마도 요단강변의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자복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나온 길을 변화시키는 헌신의 서약으로 침례를 베풀었다. 당시에 (할례와 함께) 침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주의로 개종할 때 가장 흔하게 일어났고, 요한도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바탕으로 한 침례를 요구하였다.

그가 그렇게 말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3:7-12)

평판이 비평을 일으키는데 요한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들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는 곳에 왔는데(3:7), 아마도 달린 마음으로 그를 평가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소수만이 신실했던 반면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회개에 기초한 침례를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6:2, 5, 16절을 보라). 요한은 그들의 불성실함을 비난했다. 그들을 독사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영리하고 위험하며 어쩌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악마에 대한 암시였음을 타나내는 것이다. 그의 수사학적 질문인 “누가 너희더러 ... 하더냐?” 는 풍자를 암시한다(마 3:7). 이것은 이 사람들을 거룩하고 본보기가 되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매우 담대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위선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요한은 직접적으로 비난을 퍼부었다(3:8). 그는 회개의 증거를 요구했다. 요한은 행위에 의한 의로움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구약에서 기대하는 바와 일치했다:

-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겔 14:6) .
-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 하리라” (겔 18:30).

이런 말씀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아직도 그들은 유대인의 혈통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고 아브라함의 의로움만 믿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알고 있었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유대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마 3:9) 하면서 말장난을 했다(아람어에서는 “자녀들”과 “돌들”이라는 말이 비슷하다). 요한은 인종이 아니라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출입문과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이 뿌리까지 영원히 제거되어 버리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고 하였다(3:10)

요한은 계속해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선한 것임을 표현하지만 이것은 단지 준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3:11).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데, 이는 제자들을 순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유대인들은 성령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사라졌다고 믿었기에, 이러한 선언은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러한 침례를 베풀 자격이 있는 오실 분이라고 했다(잠 118:26; 40:7). 침례 요한은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는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 하는 일인 메시아의 신발도 들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요한은 예수님이 다른 일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마 3:12). 그 분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한테는 친숙한 이미지인 키질을 하여서 알곡을 쳐올려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버린다. 가벼운 쭉정이는 무거운 알곡에서 분리되어 땅에 떨어진다. 타작마당은 곳간에 들일 알곡을 모아서 깨끗해지고 쭉정이는 묶어서 태워버린다. 예수님의 손 안에 남아있지 않는 알곡은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받는다(사 66:24; 마 23:33; 막 9:43; 계 20:15절을 보라).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서 의로움 (3:12-15, 19-23)

요한이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150마일 이상을 여행하여 요한을 놀라게 했다(마 3:13).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행한 다른 사람과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하려고 고민했다(3:14).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침례를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이제 자신이 베푸는 침례는 예수님에게는 가치가 없다고 믿게 되었다.

요한이 주저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 권위로 대답했다: “이제 허락하라” (3:15).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성취했으니 "합당"한 것이 되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침례를 요한에게서 받게 하셨을까? 메시아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예언이나 계명은 없었다. 대신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여(빌 2:6)- 죽어야 하는 희생은 의로운 순종의 행위였다. 침례는 성령에 의존하여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는 예수님의 선택을 상징한다. 게다가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요한의 메시지가 거룩하게 기름부음 받은 것임을 확인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드러냄으로써(요 1:31)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께로 이행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기독교인의 침례는 순종의 행위이다("물에 흠뻑 젖어"라는 소제목을 보라). 이것은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기에 앞서 회개로 정결케 되고, 죄를 용서받고, 삶의 옛 모습에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자신의 장사지냄과 부활을 예시하는 것이었다(롬 6:1-7절을 보라). 침례는 그리스도의 장사지냄과 부활을 반영한다.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마 3:16). "하늘이 열리고"는 구약의 구절인데(겔 1:1) 신성한 사역을 나타낸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평화롭게, 부드럽게)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가복음 3:22절에서는 비둘기가 "형체로" 내려왔다고 한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비둘기는 심판의 끝과 축복의 시작을 상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은 자신의 사역의 완성에 권능을 받는 공식적인 기름부음을 받는 경험을 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신하의 임명식 또는 왕의 대관식과 매우 흡사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공식적인 취임식의 역할을 한 것이었다. 이보다 더 좋은 비유가 있을까? 그분은 고통 받는 종이었고(사 53:11) 왕 중의 왕이셨다(계 17:14; 19:16)!

삼위일체의 한 분 한 분이 이 짧은 본문 속에 다 나오고 있다. 비둘기가 내려옴으로 성령님이 부어졌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신성의 확인자로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감성적이며 애정이 깊은 선택이라는 의미로 "사랑" (그리스어로 아가페토스)을,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뜻하는 기쁨("매우 기뻐하는" 그리스어로 유도케사)을 표현하셨다. 예수님은 아직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고(그 분은 이미 아들이셨다; 시2:7; 사 42:1절을 보라), 이 장면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제자들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행 1:8; 마 4:4).

적용 및 실천

선구자로서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을 받아들일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요한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려고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메시지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들인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자신들은 하늘의 안전한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구원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그들의 조상의 유산-에 믿음을 두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사람들도 비슷한 가정을 하고 있다. (유아로서 혹은 성인 비신도로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영원한 목적지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회원 혹은 직분, 그리스도인의 가족, 도덕적인 사람, 또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같은 것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변화된 삶의 증거가 바로 믿음의 표시이다(약 2:18).

회개의 마음을 나타낼 필요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포함하여(빌 2:6-8)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에 순종함을 나타낸 것이었다. 순종함으로 이런 행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놓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질문

1. 침례요한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떠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의 말을 들으러 갔겠는가? 당신은 냉담한 관찰자인가, 호기심 많은 추종자인가, 비평가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왜 그런가?
2. 요한의 간단한 메시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에는 당신을 끌어들이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고 왜 그런가?
3. 마태복음 3:9절에서 요한이 한 말과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다는 말을 연관지어보라.
4.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시면서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다(3:15). 요한의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이었으나, 요한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충분했을까, 아니면 당신이 순종으로 따르기 전에 그 분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을까?
5. 당신이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왜 그런가? 만약에 당신이 이미 침례를 받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참고]

물에 흠뻑 젖어

전통적으로 침례 신학은 그리스도가 수행하신 순종의 행위인 의식이라고 불리는 실천적 침례를 표시한다(마 4:17). 그러나 구원을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다. 게다가 이 의식은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행해졌는데, 이유는 신약의 저자들이 수영 혹은 잠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리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때때로 침례를 다시 받는 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는 했는데, 참된 변화의 경험을 통해서 첫 번째 침례를 받았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들의 믿음을 성도들

앞에서 재현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찌되었든 제자도의 초보 단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치적인 개별 침례교회는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사례와 원칙으로 발전시켜왔다.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침례와 관련하여 어떠한 전통과 사례를 가지고 있는가?

실천적 안내서

마태는 복음서를 회심한 사람을 위한 삶과 믿음의 안내서로서 썼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면서 시작하였지만, 다음에는 성도들이 모범으로 삼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성경 말씀에서 당신이 찾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적어보라. 여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 * 회개(3:2)
- * 주님의 사역에 반응함(3:3)
- * 침례 받음(3:6)
- *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살아라(3:8)
- * 불의한 삶의 선택을 피하라(3:8, 10)
- * 성령님의 존재를 받아들여라(3:11)
- * 하나님의 사역을 그만두게 하려 하지마라(3:14)
- * 이상하게 보일 때에도 순종하라(3:15)

[제 3 과]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4:12-22</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4:12-25</p>	<p>학습주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다.</p> <p>탐구질문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는 도전에 대한 응답은 무엇인가?</p> <p>학습목표 “나를 따르라” 는 예수님의 도전에 응답했던 제자들의 관점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인도한다.</p>

들어가기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고 제자로서 자신을 따르라고 도전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심으로 예언을 완성하셨다.

마태복음에서 이 지점까지는 서문이었다. 첫 세 장은, 이방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자기 백성들에게서는 거절당하시고, 침례 요한의 사역과 침례 받은 것을 통한 예수님 사역의 소개라는 성경의 예언을 완성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마태에게 있어서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사람들이 세 단어로 된 “와서 나를 따르라” (마 4:19)는 간단한 문장에 응답할 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만나게 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쁜 소식, 좋은 소식 (4:12-16)

침례를 받은 기쁨(마 3:13-17)과 광야에서 받은 유혹의 시험(4:1-11)에 이어서, 예수님은 나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촌이자 동료 사역자이며 또한 예언적 선구자인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었고(4:12), 그는 그곳에서 사형 당할 때까지 있게 되었다. 이것은 선구자로서 요한의 사역을 완성하였고, 자신이 지명한 분께서 이제 흥하실 것이다(요 3:29-31). 침례 요한의 투옥이 예수님을 왜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성경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만큼은 마태에게 분명했다.

누가복음 4:16-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갔지만 회당에서의 가르침에 대하여 폭력적인 반응이 있음으로 곧 떠나버렸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피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향하여 북서쪽으로 나아갔다(마 4:13).

예수님의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왕성해지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는 종교지도자들의 반대와 대결을 펼쳐야 한다. 나사렛 주민들과는 달리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예수님을 잘 몰랐으며, 있다고 해도 미리 알았을 사람은 얼마 없었을 것이다.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정치적 중심지이며 번창하는 어업을 누리고 있었다. 그 규모와 중요성은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로 이상적이었다. 이 도시는 몇몇 제자들의 고향이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리고 원래는 벳세다 출신이지만(요 1:44) 가버나움으로 이주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였다(막 1:21, 29).

가버나움에 대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마 4:13)이라는 마태의 표현은 바로 이어지는 다음 말씀들로(마 4:15-16) 이사야서 9:1-2절의 예언을 반영한다. (나사렛이 있는) 스불론과 (가버나움이 있는) 납달리는 구약에서 갈릴리 지역이었다. 이 예언은 원래 앗시리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구원자에 대한 것이었다.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의 메시아적 구원 사역에 적용시킴으로 이사야가 기대했던 것을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변 길” (4:15)은 다마스쿠스(갈릴리 북서 지역)와 서부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를 연결하는 로마의 도로였다. 도로의 일부는 갈릴리 바다를 따라서 가버나움과 벳새다로 연결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였다.

“요단강 “ 너머에 데가볼리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그곳까지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방의 갈릴리” 는 갈릴리 호수 북부 모든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명이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사야의 시대에도) 많은 이방 인구가 있었고 1세기에도 역시 많은 이방 인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본문을 포함시킨 마태의 선택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사역이 이방의 나라들로 가야하는 것임을 예견한 것이었다(마 8:10; 15:2-28; 24:14; 28:19). 그러나 마태가 4:16절에서 사용한 “백성”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가리키기 보다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흑암에 사는 백성”은 유대인들로 이해되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들의 믿음과 삶의 양식을 박해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한 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큰 빛”, 즉 메시아라는 소망이 주어졌다(눅 1:78-79; 요 1:4-5, 9; 8:12절을 보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그들은 어두움이 가장 깊은 곳에 살았지만, 여기에도 빛이 “비취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빛은 먼저 이 지역에서 비취었다(시 119:105, 130절을 보라).

같은 노래, 2절 (4:17)

마태는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두 번씩이나 “이때부터”라는 같은 구절을 사용하여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역사, 사역, 가르침이라는 서문을 썼고, 16:21절에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인도하는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요한이 선포한 것을 반복하면서 시작하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뜻하신 바도 같은 것이다. “회개하라”는 단지 미안하다거나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키라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구약의 이사야(사 59:20), 예레미야(렘 15:19), 에스겔(겔 14:6; 18:30, 32), 그리고 호세아(호 11:5)와 같은 선지자들은 수백년을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과 행동을 바꾸도록 회개하라고 촉구했었다.

요한처럼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를 강력하게 권고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셨다. 천국은 구원받은 백성과 자연이 조화와 거룩함 속에 공존하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다.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그 구절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마 19:23-24; 막 10:23-25절을 보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시 135:6; 마 11:25; 행 17:24절을 보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어 제 3 계명을 어기는 것을 피하기 위한 유대인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출 20:7). 게다가 마태가 “천국”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부가된 그리스도의 권위를 예견하는 것이다(빌 2:9-11절을 보라).

이 지점부터 마태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려고 애쓰면서 예수님을 향해 악의를 키워나가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커져만 갔는데 이유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평범치 않은 가르침 때문이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를 것이지만, “나를 따라 오너라”(마 4:19)고 초대된 일부의 사람들과 함께 시작될 것이다.

지도자를 따르라 (4:18-22)

당신은 어떠한 요청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가겠는가? 누구의 요청인가가 문제인가? 당신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먼저 생각부터 해보는가? 당신의 계획을 바꾸는 동기는 무엇인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요 1:40-42).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형제들을 발견하셨다. 그들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였다.

마태는 계속해서 15-16절에서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있었다는 것이다(마 4:18).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그들의 어깨 너머로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하여 원을 그리며 던졌다. 그들이 던진 그물은 배의 양쪽에서 드리우는 그물이지 저인망식 그물은 아니었다. 이런 형태의 고기잡이는 중요한데,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목표를 위해 그물을 드리우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려고 했던 것인데, 다만 목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나를 따라 오너라”는 문자적으로 나의 뒤를 따르라는 뜻이다(4:19). “오너라”는 감탄의 표시를 뜻하는 접속사로서 읽을 수도 있다. 이런 급박한 느낌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4:17). 예수님과 함께 향으로써 어부들의 새로운 사역은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초청하여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도록 하는데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문 어부들은 자신들의 일에 지치고, 시간을 소비해야 하고 또 더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을 낚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비슷한 도전이 되는 것이리라. 새로운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남아야 한다는 것을 빨리 알게 될 것이다. 약해지고 반대에 부딪히고, 심지어는 개인적인 손실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5:11; 10:37; 16:24; 막 6:30-32절을 보라).

그리스어에는 실제로 따르라는 몇 개의 표현이 있지만, 모두 육체적 행동을 뜻한다. 가르칠 때 걷는 것은 당시의 랍비(선생님)와 철학자들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행동은 학생들이 가르침을 잘 흡수하게 해주고 자신들의 선생님의 예를 잘 모방하게 하여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이한 점을 현대의 독자들은 놓치고 있다. 1세기의 순례하는 랍비들은 학생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고 싶은 소망이 훈련을 필요로 하는 선생님과 관계를 유발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학생들이라는 뜻) 뽑았으며, 그들이 예수님의 여행과 사역에 동행하여 따라갔을 때 예수님은 이 새로운 사역이라는 그들의 소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 주었다(막 13:11; 눅 12:11-12절을 보라).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기적으로 물고기를 잡게 함으로써 그들을 부르시는 사건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다(눅 5:1-11).

오늘날의 제자들에게 주는 비유는 분명하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 분은 평생을 바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마 28:19-20; 행 1:8; 고후 3:6, 골 1:12) 공급하실 것이다(엡 2:10; 빌 4:19).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투자하면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동행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함께 여행하도록 했다. 그래서 마태만 유일하게 교회를 포함시킨 복음서의 작가라는 면에서 마태복음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다(마 16:18; 18:17).

두 번째 형제는 “그물 낚는 것을” (4:21) 하고 있었는데, 하루를 막 시작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낚다라는 동사는 수선하다라는 뜻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밤새 물고기를 잡은 후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가복음은 그들의 배는 일꾼을 고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큰 배라고 하였는데(마 1:19-20), 이는 아마도 그들이 재정적으로 대단히 성공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마태는 그 형제의 즉각적인 반응을 부각시켰는데(4:20절의 “곧”, 그리고 4:22절의 “곧”), 진정한 제자도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따르기 위하여 과거를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 베드로와 안드레도 자신들의 그물을 떠났다. 요한과 안드레도 자신들의 배와 아버지, 그리고 아마도 화려한 삶과 사업마저도 떠나버렸다. 그들은 한 가지 단순한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어떨까?

적용 및 실천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회개다. 그는 빛이시며 인류의 죄악에 찬 환경에 희망을 비춰준다. 이 부르심에 응답했는가? 당신의 삶, 생각,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롬 12:1-2). 당신의 회개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정결해지기 위해 그와 함께 교체하며 매 순간마다 회개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 첫 번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는 희생이 필요한 순종의 문제이다. 마태 당시의 청중은 자신들이 위험 혹은 죽음의 위협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사도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개인적인 선호와 계획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 과거와 단절하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교체하기를 기대하신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한 이런 관계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가? 아니면 당신의 메시지와 제자도의 사례는 날마다 매순간 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것 대신에, 따라야 할 종교적인 규칙인가?

질문

1.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은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2. 인간의 본성은 가장 최근에 발간된 책, 가장 소설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은 왜 예수님이 새롭고 다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요한이 한 말들을 반복했다고 생각하는가? :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
3. 당신은 제자도를 규칙들을 지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또는 예수님과 매순간마다 관계를 가지며 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왜 그런가? 당신의 관점을 재조정하거나 초점을 다시 맞추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4. 바다에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기 위해 그물을 수선하는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미래의 이익을 떠났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리겠는가? 또는 버린 것은 무엇인가? 재정적 수익, 삶의 보장, 가정의 평안함? 그 밖에 다른 것은?
5.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선택에 대하여 어떻게 느꼈을까?

[참고]

사도 혹은 제자?

만약에 사도와 제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비록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실천 혹은 표본으로, 자신들의 교회에서의 지도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전통적으로 이 용어는 예수님이 육체의 형태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선포하고, 1세기 교회의 지도력과 권위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열두 제자를 “사도” (눅 6:13)라고 불렀으며 그들에게 천국이 오고 있음을 선포하고, 마귀를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임무를 주셨다(마 10:1; 눅 9:2).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며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 진정한 제자는 제자도의 목표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한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은혜를 대표하도록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 모든 삶의 형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라:

- *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했는가?
- *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가?(빌 4:8절의 말씀과 비교하여 당신이 섭취하는 미디어를 생각해보라.)
- * 영적인 성장, 예배, 그리고 기도에 헌신했는가? 개인적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와 함께?
- * 성령님이 나의 삶에 자유롭게 운행하시는가?
- * 나의 삶은 정결함과 성실함의 사례인가?
- *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실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가?
- *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역동적으로 찾아보고 있는가?

[제 4 과]	제자의 구별된 삶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5:1-16</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5:1-16</p>	<p>학습주제 구별된 자질과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다</p> <p>탐구질문 일반적인 삶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p> <p>학습목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구별된 자질과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신들의 삶을 평가해보도록 한다.</p>

들어가기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구별된 자질과 행동으로 인식되는 삶의 방식의 정수를 나타내고 있다.

제자라는 말과 원칙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은 말이다. 원칙이라는 말은 해야 할 때 해야 할 것을 한다는 뜻이다. 제자는 누군가가 해야 할 때 누군가가 해야 할 것을 하는 바로 그 누구이다. 산상수훈은 제자의 삶을 형성하는 영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서다. 일반적인 자질과 행동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자질과 행동이다.

원칙은 약간의 기초 설명과 신중한 행동을 포함한다. UCLA의 전설적인 농구 감독인 존 우든은 자신의 선수들에게 양말은 어떻게 신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면서 시즌을 시작했다. 우든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수들에게 물집이 생겨, 달리고 점프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선수들의 마음이 발에 생긴 물집이 아니라 농구 경기에 집중되기를 원했다.¹

마태복음 5-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중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 설명을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기를 원했다.

원칙 있는 삶의 축복 (5:1-10)

예수님 당시에 여행을 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걷기였다. 유대의 랍비는 주로 길을 따라 걸으면서 책을 읽거나 자신의 학생 혹은 제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가르칠 때는 늘 자리에 앉았다. 회당에서 설교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앉았을 것이다. 일반 대학이나 신학 대학은 종종 어떤 학문 분야에서 의자를 증여하기 위해 기금을 모금한다. 의자는 교수가 강의를 하기 위해 앉는 장소를 나타낸다. 오늘날에도 교황이 공식적인 발표를 하거나 새로운 법을 발표할 때 권위로써 말하는데, 자신이 앉은 의자로부터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앉으시니” 라고 기록한 것은, 공식적인 가르침을 주려는 자세를 취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마 5:1).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의 진수를 가르쳐 줄 준비가 되었다.

산상수훈은 제자의 여덟 가지 자질로서 시작하고 있다. 그것들은 라틴어 베아투스에서 온 팔복이라고 불렸는데, 복 받은 이라는 뜻이다. 복 받은 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을 나타낸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활이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기회를 뜻한다. 인간적인 행복은 종종 사람이 조절할 수 없는 기회에 의존한다. 병, 사고, 죽음과 같은 많은 일들은 행복을 슬픔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성된 복은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팔복의 여덟 가지 자질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해 하는 것, 온유한 것, 굽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 긍휼이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또는 핍박 받는 것을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할까? 분명히 일반인은 이러한 자질들이 복과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거절할 것이다.

팔복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다. “심령이 가난한” 것의 반대는 영혼이 교만한 것이다. “애통하는” 의 반대는 무관심 또는 쾌락을 좇는 것이다. “온유” 의 반대는 폭력이다. “핍박을 받는 자” 의 반대는 안전하게 즐기는 사람, 타협하는 사람, 또는 정의의 입장에 걸코 서지 않는 사람이다. 이러한 자질들이 복과 행복을 만드는가?

제자의 이 여덟 가지 자질은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않지만 언제나 예수님처럼 살기를 찾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슬픔으로 인해 친구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금홀히 여기는 사람”은 사소한 것은 넘어가고 큰 것은 용서하면서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다. 밖으로 보이는 것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평화를 지키는 사람 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보다 그 이상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경멸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특별하게 하는 구별된 자질과 행동이다.

원칙적인 삶의 어려움 (5:11-12)

예수님은 원칙적인 삶의 어려움에 대하여 제자들을 잘못 인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에게 의롭게 사는 것은 “욕”, “거짓 핍박”, 그리고 “모든 악한 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다(5:11).

핍박에 대한 그리스어원은 디오코인데, 소송한다는 뜻이다. 누군가를 경멸하거나 조롱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표현한 소송은 욕하거나 제자들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악한 말을 거짓으로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핍박은 제자들을 세상의 기준에 순응하기 위해 거절하도록 하게 하거나, 또는 잘못된 것을 따르게 하기 위해 거절하도록 위협 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핍박은 원칙적인 삶의 행동 - 의롭게 사는 것으로 인하여 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핍박을 만들어내는 길에서 벗어나서 가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의로운 삶으로 인해 핍박 받을 것을 기대하라고 가르쳤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핍박에 대하여 배웠다. 그는 베드로전서 4:15-16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기록했다.

팔복에서 발견되는 실질적인 의로움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다른 종교나 세속주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문화로부터의 핍박을 가져온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19-21절에 다시 기록했다.

만약에 사람이 공평하지 못한 고통을 참아낸다면 칭찬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잘못된 것에 대해 매 맞고 견디어 낸다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나 당신이 선한 것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견디어 낸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 당신은 부름 받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 고통당하시고, 당신이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례를 남겨 놓으셨기 때문이다.

박해는 예수님의 신실한 모든 제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올 것이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단 한 명의 아들이 있지만, 고통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원칙적인 삶의 어려움은 이중의 축복을 가져 온다: “천국”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마 5:10, 12). 사람이 고통 가운데 굳게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뒷걸음치지 않을 때, 천국은 그 사람의 삶에서 현실이 된다. “천국”은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한다.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러한 삶은 복 받은 자라고 불리는 영적인 만족을 제공한다. 사람이 올바른 이유로 확고하고 원칙적인 선택을 할 때, 거기에는 만족감이 있다.

원칙적인 삶은 어렵다, 그러나 복을 받은 것이다!

원칙적인 삶의 영향 (5:13-16)

모든 제자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갖기를 기대한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한다, 너희 모두가 이 땅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다(5:13-14). 그 분은 너희 가운데 한명이 세상의 소금일지도 모르고 가 아니라, 너희 모두가 이 땅의 소금이고 너희 모두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팔복에서 찾을 수 있는 구별된 자질과 행동은 소금과 빛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묘사했다(5:14). 그들은 세상에서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도록 영향을 끼치지 위하여 그런 뛰어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 뛰어나고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게 된다. 열방은 오고 간다. 정부도 오고 간다. 단체도 오고 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서 있다.

소금과 빛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주변 세상에 발휘하는 영향력에 대한 강력한 비유이다. 소금은 방부제와 양념으로서 귀한 것이었다. 소금이 너무 귀해서 1세기 로마 군인들은 종종 소금으로 봉급을 받기도 했다. 빛은 여행길을 안내하거나 어두움에 둘러싸인 곳을 보이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것이다.

예수님이 묘사하신 제자의 구별된 자질과 행동은 소금과 빛의 영향력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서 역할을 한다. 공개적으로 복 받은 삶을 사는 것은 타락하고 어두워진 세상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찬 영향을 발휘한다. 이러한 구별된 자질들은 영적인 삶을 보존하게 도와주고 영적인 안내를 제공하도록 도와준다.

적용 및 실천

이 설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산상수훈은 아마도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후에 바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선택이 있는 다음에 가르침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먼저 구원자로서 알지 못한다면, 그 분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고 실망으로 인도될 수도 있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로서의 삶을 특별하게 하는 구별된 자질과 행동을 만들어 간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떼어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만든다. 표면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팔복의 윤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축복을 발견하게 된다.

질문

1. 복 받음과 행복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2.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청중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실까?
3. 오늘 팔복 가운데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꼭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가?
4. 어떻게 제자는 율법적이거나 주인행세하지 않고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참고]

복 받음

영어의 복 받음은 그리스어인 마카리오스를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복 받음, 행운, 또는 행복으로 번역될 수 있다. 구약에서 그리스어 마카리오스에 해당되는 말은 아쉐리인데, 시편 1장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강조의 히브리어 동사인데, 아, 얼마나 행복한가!로 번역될 수 있다. 이 단어는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영적으로 원칙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표시한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원칙 있는 삶의 결과로 매우 행복하거나 만족해한다.

자비

바비는 토요일 아침에 가족들을 데리고 아침을 먹으러 갔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추웠지만 바비가 운전하는 SUV 안은 따뜻했다. 그의 아들과 딸은 뒷자리에 앉아서 아빠 엄마와 함께 자기들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가는 것에 기분이 좋아 행복하게 이야기를 했다. 바비의 아들인 브래드는 아버지에게 레스토랑에서 어떤 종류의 팬케익을 주문할 거냐고 물었다. 바비는 대답할 말을 생각하면서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에 멈추었다. 그 때 가족들은 흐트러진 차림의 여자가 커브에 서 있는데, 조그만 아이가 여자 바로 옆에 서 있었고, 손에는 이렇게 적힌 싸인을 들고 있었다, “집이 없어요 - 배가 고파요 - 도와주시겠습니까?” 바비는 가족 모두가 그 여자와, 그녀의 딸과 또 싸인을 보았음을 알고 있었다. 바비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끝]

¹ <http://newsroom.ucla.edu/portal/ucla/wooden-shoes-and-socks-84177.aspx>. 2011-7-15에 접속.

[제 5 과]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5:17-48</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5:17-48</p>	<p>학습주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특성에 근거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완전히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친다.</p> <p>탐구질문 어떻게 제자의 삶을 측정할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인도한다.</p>

들어가기

예수님이 해석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면의 영적 동기부여에 근거를 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삶의 양식을 요구한다. 이런 내면의 영적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특성에 기초한 마음에서 온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넘어갔을 때 가끔 runner's high를 경험한다. runner's high는 선수가 새로 생성된 에너지로 거의 애쓰지 않고 달릴 수 있게 해주는 행복감이다. 경기에 대비한 훈련이 끝난 후, 선수는 성공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안내해주는 규칙에 따라서 자신이 가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선수들은 자신들이 훈련한 바에 따라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러나 runner's high가 발휘되면 선수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선수들의 신체는 더 높은 수준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승한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리고 그 율법을 넘어서심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제자도의 삶이란 그 제자가 하나님의 특성에 뿌리를 둔 마음에서 샘솟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이라는 단순한 구조를 어떻게 넘어서는가 하는 것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성경 본문]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마 5:17). 그 분은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세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마 5:18).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강제하기 위하여 고안된 1세기의 종교적 실천 조항이었다. 이러한 법전 형식은 엄격하면서 강압적이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말씀하셨다(5:20). 규칙과 행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종교는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도 했는데, 이유는 사람의 본성이 믿음과 신뢰보다는 확실한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은, 제자도란 하지 말아야 할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종교적 실천 조항들로 믿고 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 엄격한 종교적 규칙과 율법으로 사는 삶이 강압적이고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보태야 할 할 것 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오셨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지 않을 것 보다는 오히려 내가 할 것에 근거한 긍정적인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이란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반영하는 선한 행위에서 흘러나오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율법은 순종의 글보다는 순종의 정신으로 “완전” 해진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고후 3:6)고 말하면서, 의문이 아니라 영에 의해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약속을 생각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율법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하지만 심장의 박동에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율법의 완성은 성령님이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해석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더 나은 의로움을 요구한다

요한은 우리에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고 기억나게 한다(요 1:17).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계속하시면서 보다 나은 의로움의 진실을 지적하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모세의 율법은 주로 너는 ... 하지 마라와 같은 금지조항들로 구성되었다. 예수님은 율법에 더욱 긍정적인 의미와 실천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 분은 제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부터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로 강조점을 바꾸셨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라고 도전을 받는데, 이유는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다(마 5:20).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던 예수님의 비유는, 분명한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의무에 실패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나타내었다. 예수님은 여섯 개의 예화를 통해서 이런 더 나은 의로움을 지적하였다:

1. 분노(5:21-26). 모세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고 한다. 더 나은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넘어서서 화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 나은 의로움을 위반하는 분노는 사람의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은 사람을 바보로 판단하여 하나님 의 피조물인 다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한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자기 자신 이나 다른 사람을 파괴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2. 간음(5:27-30). 모세의 율법은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여자를 욕심을 품고 바라보는 것이 마음에서 그녀 와 간음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올바른 경우라면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행위가 발생할 것 이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기억하게 한다(히 4:15).
3. 이혼(5:31-32). 모세의 율법은 결혼생활에 불성실함으로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이혼 은 반드시 이혼 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 의한 이혼의 단순한 절차를 뛰어 넘으셨다. 예수님은 이혼의 위험이 여자에게 가하는 실제적인 현실을 다루셨다. 더 나은 의로움은 절차를 뛰어 넘어서 개인적이고, 영적이고, 감정적인 현실까지 다가간다.
4. 맹세(5:33-37). 모세의 율법은 사람이 자신의 증언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떤 다른 신성한 물건 이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예수님은 사람이 왜 맹세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까지 다가갔다. 맹세는 자신의 방식을 얻어내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고 압적인 조작이며 더 나은 율법의 단순성과 순결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제자는 그냥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라고 말하면 된다.

5. 더 가주는 것(5:38-42). 모세의 율법은 악행에 대한 보복을 허락하고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것보다 더 해중으로써, 그리고 부탁하는 사람에게는 중으로써 악을 선으로 갚아 주라고 가르쳤다.

6. 적을 사랑하라(5:42-48). 모세의 율법과 더 나은 의로움의 마지막 대조는 우리의 적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적을 미워” 해야 한다고 들었다. 예수님은 제자는 적을 위해 기도하기까지 그들을 사랑하해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더 나은 의로움의 윤리를 대조시켰다.

더 나은 의로움은 제자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받고 영감을 받는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완전함에서 완성 된다

예수님은 이 설교 부분을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5:48).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롬 3:10). 성경은 또한 우리의 의로움이 더러운 옷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다(사 64:6).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온전함에 까지 측량할 수 있는가?

적용 및 실천

기적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였고 그 분이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임신한 마리아가 돌에 맞는 것을 막아주셨고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아기 예수를 보호하셨다. 천사들이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지시와 경고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하늘에 나타난 별은 점성가들의 장대한 여행과 경배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특별하면서도 초자연적인 상황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목적을 알려주었다.

창세기 22:18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 일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예수님이 복이며 그분의 임무는 “모든 족속” 으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마 28:19).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오직 마태만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을 기록하였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여자를 포함시키고 유대인이 아닌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중요하고 복음이 제시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롬 3:23)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필요하다. 그

분은 위법과 이방인의 차별을 무시하시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분은 존귀한 분이심을 믿고 그 분을 따르라.

질문

1. 사회적이며 감정적인 위험을 고려할 때, 당신은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라는 것을 따랐던 것처럼 천사의 지시에 순종했을 것인가?
2.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부정적인 환경을 사용하여?
3. 당신은 당신의 교회에 참석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다르게 반응하는가?
4. 당신은 당신에게 보답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사회에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사역하는 것에 참여하고 있는가?

[참고]

시험과 유혹

신자들은 2절에 나오는 “시험”이 불가피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13절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 “시험” 당하지 않는다고 배웠다. 이 시험과 시련이라는 두 단어는 그리스어 peirasmos라는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 단어의 명사형은 2절과 12절에서 볼 수 있고, 동사형은 13절에서 볼 수 있다.

원래 이 단어는 좋든지 나쁘든지 시험이라는 뜻이다. 2절에 나오는 시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좋은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13절의 시험은 파괴적인 욕망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 시험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견디어낼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시험(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들로부터 달아나야 한다(고전 10:13).

시험을 당할 때의 인내는 우리를 결전장으로 이끌고 간다. 시험(유혹)에 굴복하면 파멸로 가게 된다.
[끝]

[보충]

인생의 시험들과 연관된 실제적인 기독교 정신

- * 주님이 주신 기쁨 속에서 인생의 시험들에 대한 힘을 발견한다.
- * 삶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구한다.
- *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들지 말라.
- * 유혹으로부터 달아나라.
- * 하나님 말씀의 원칙들을 적용하라.
- *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옹호하는 삶을 살아라.

[끝]

¹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 1-4과의 모든 성경말씀은 개역개정판에서 인용한 것이다.

<p>[제 6 과]</p>	<p>너희 믿음을 저렇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보이라</p>
<p>핵심본문 마태복음 6장 1-18</p> <p>배경 마태복음 6장 1-18</p>	<p>학습주제 예수께서 인간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행습을 요구하시다.</p> <p>탐구질문 예수께서 인간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행습을 요구하시다</p> <p>학습목표 나는 나의 믿음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행하는지 평가한다</p>

들어가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기 보다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습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경고하셨다.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는 인간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습을 해서는 안된다.

대학교와 프로의 풋볼 임원들이 어떤 훌륭한 플레이와, 점수, 혹은 승리를 얻은 후 지나친 세레모니를 하는 팀에 대해 벌칙을 가하는 룰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어떤 선수나 팀이 지나친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인해 상대 방 선수나 팀에 공개적 수치심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마 6:1) 행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헬라어 신약성경은 theathenai 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 "theatrical, 띠아트릭컬" 의 어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시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칭찬이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인정받는다.

사람들의 칭찬을 사는 것

마태복음 5:17-20절의 일반적인 교훈을 5:21-48절의 6개 대조로 설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6:1절의 일반적인 교훈을 6:2절-18절에 있는 세 가지 종교적인 행습들로 설명하셨다.

제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하도록 격려를 받았지만 (마 5:16), 그들이 칭송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은 금지 받았다.

예수께서는 최고의 종교적인 행습, 혹은 "의로운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신실한 유대인의 세 가지 근본적인 종교적 행습들의 하나이다. 사실 자선, 기도, 그리고 금식은 유대인의 선행적 삶의 근본이 되는 기초들이었다. 이 모든 행습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그 동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셨다. T.S. Eliot 가 썼던 것처럼 최후의 유혹은 가장 커다란 반역이다. 즉, 그릇된 동기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¹⁾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6:2)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 성전의 여인들의 뜰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할 때 마치 나팔을 불듯 그들의 동전을 큰 소리가 나도록 떨어뜨렸다. 만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칭송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선을 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2)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이나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자선가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다. 신약성경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복합단어이다: 배우라는 뜻의 hupokrites 이다. 그 문자적 의미는 가면 쓴다는 뜻이다. 그 단어는 고전 헬라어로부터 온 것인데, 무대 위에서

1) T.S. Eliot, *Murder in the Cathedral* (New York: Harcourt Brace, 1935), 44.

가면을 쓰고 어떤 인물을 연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의미가 발전되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흉내 내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이는 얼굴과 하나님께 보이는 얼굴이 똑같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

예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자연스러운 선행의 흐름을 강조하신 것이다 (6:3). 자선을 베푸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써 다른 손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마지막 심판날에 칭찬을 받는 종류의 것이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25:37). 바로 이러한 종류의 자선이 하나님의 관심과 보상을 받는 것이다.

자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진술했다.

제자가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자선을 행할 때 그의, 혹은 그녀의 자선은 하나님에 의해 복을 받고 몇 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자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

예수께서 참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셨을 때, 위선자가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주목하셨다. 이는 공개적인 기도의 하나로써 가장 용되는 기도 형태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장소에 놓여졌을 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는 개인적이고 진정한 필요를 못하게 할 수 있다. 청중은 종종 하나님 주변에 모이기 보다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주변에 모이게 된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요청받은 새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 기도를 하는 것과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지속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 영적인 성숙은 때로 무엇을 기도했냐가 아닌 어떻게 기도했냐에 의해 판단을 받는다.

수 년 전에 한 청빙 위원회가 그들의 교회 목사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나를 방문했었다. 그들과의 처음 대화를 하는 중에 청빙 위원회원 중의 한 명이 말했다, "전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을 보겠다는 이러한 요구에 충격을 받았다. 이 요구는 정확하게 예수께서 기도에 관해 가르치실 때 경고하셨던 것이다. 내가 왜 이 사람이 듣도록 기도를 해야하는가? 내 기도를 들어보겠다는 그 사람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는 나의 기도를 들어보고 나의

영적 성숙도, 혹은 신학적인 건전성을 판단해보겠다는 것인가? 나는 정중하게 그 요구와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될 기회를 거절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그는 기도가 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필요성, 혹은 하나님과 독대할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계셨다.

때로, 예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께서 기도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또, 마태복음 23:36절은 예수께서 겓세마네 동산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러한 기도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이다.

바리새인적 종교는 일정한 양의 매일의 기도가 요구되었다. 어떤 시간이 되어 그 사람이 도시에 있으면 그 사람은 긴 기도를 했다. 예수께서는 많은 말들로, 혹은 "중언부언"으로 하나님을 압도하고 사람들에게 인상을 심어주려는 이러한 식의 기도 습관을 꾸짖으셨다. 기도는 그 양이 아니라 진정성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들에 대해 과장된 말로 알림으로써 하나님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 6:8).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감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기도에 관한 이 가르침을 참된 기도의 한 예로 결론을 맺으셨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 (서구권에서는 model prayer) 라고 부르는 것이다 (6:9-13). 예수께서 "이것을 기도하여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가 드러질 때마다 예수님의 모범 기도가 암송되듯 똑 같이 드러져야 된다고 가르치시지 않았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 기도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에 강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목을 끌기 위한 금식

금식, 음식이나 물을 끊는 것은 그것을 하는 사람의 모든 힘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금식은 1세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행이었고, 예수께서도 금식하셨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는 40일 금식으로 시작되었다 (4:2).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본으로부터 금식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힘을 집중시키기 위해 행해졌음을 배우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금식은 때로 영적으로 어려운 사명에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붓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라고 가르치셨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한 귀신들린 소년을 치유하신 것과 관련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한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막 9:29, KJ.V 는 '금식'이 포함되어 있다).

금식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가지 목적으로 행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기적적으로 회심한 후 금식했다 (행 9:9). 1세기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위해 따로 세우기 전에 그들은 금식했다 (행 13:2).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장로들을 세울 때, 그들은 금식했다 (행 14:23).

예수께서는 금식을 책망하시지 않았다. 그는 단지 금식하는 사람은 금식하는 동안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위선자들은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6:16) 고 지적하셨다. "얼굴을 흉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aphanizousi 인데 그들의 얼굴을 사라지게 한다는 의미이다. 온 얼굴에 재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경건한 사람이 간다" 고 말하곤 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보상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 원하는 것을 얻었다. 자기에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금식이 제자도 훈련에 요구되는 것일까? 예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떻게 금식하는 것인지 모범을 보이셨다. 우리는 또한 초대 교회의 모범으로부터 금식은 그들의 중요한 과업들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 사용되곤 했던 영적 관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적용 및 실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르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5:14-16절에서 말씀하셨다. 제자는 다른 사람들의 찬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한다. 제자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모든 영적인 행위들을 보시고 보상하신다.

질문

1. 왜 사람들은 물질을 베푸는 것이나 자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는가?
2. 사람들 앞에서의 기도와 개인기도는 어떻게 다른가?

3.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우리의 믿음에 대해 경박함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참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예수께서는 평이하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 6:15).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지 말아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해주시는 같은 영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비유를 적용하기

- *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자선을 베푸는 세 가지 동기를 써라
- * 만일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한다면, 예수께서 기도하신 본을 따르라.
- * 당신이 개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구한 것들의 형태를 기록하라.
- * 중요한 순간에 금식 기도를 해보라.

<p>[제 7 과]</p>	<p style="text-align: center;">하나님을 믿고 세상 일들을 걱정하지 말아라</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6:19-34</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6:19-34</p>	<p>학습주제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장 우선으로 함으로써 물질에 대해 걱정하거나 강조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p> <p>탐구질문 우리는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가 -- 하나님인가, 아니면 물질들인가?</p> <p>학습목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결정한다.</p>

들어가기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으로 내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제자의 최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물질이 먼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뒤라고 가르친다. 물질이 우선시 될 때 염려하는 마음이 지속적인 동행자가 된다.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 무언가를 하도록 하지만 어디에도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일 때, 믿음이 우리의 지속적인 동행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염려들을 쫓아낸다.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께서는 돈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힘을 가르치고 계신다. 그는 그의 청중들에게, 대부분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안전은 돈이나 어떤 소유에서 찾아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이 땅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부딪히는 것이다. 어디에서 그의, 혹은 그녀의 안전을 보장받는단 말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안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체계와 안전체계를 뒤집는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물질이 하나님의 공급으로서 따라온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21세기 제자의 도전은 물질만능주의로 가득찬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제자는 “두 주인” (6:24)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분명하다. 제자는 물질을 섬기든지, 아니면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의 하나다. 제자는 둘 모두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선이 되는 아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19:14). 영양실조로 매년 전 세계 인구의 1천 9십만 명이 죽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5백만 명이다.²⁾ 세상의 어린이들이 처한 곤경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들이 그들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도록 해야 정상이다.

염려하는 것과 믿는 것 (6:25-32)

예수께서는 다음 설교를 도입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마 6:25). 한 지혜로운 신학대학원 교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볼 때, 그 사람은 그것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세상의 필요들에 대한 충분한 공급에 대해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에 대한 염려는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벗어나게 한다. 염려는 스스로 앞 날을 예상하도록 만든다. 염려를 더 할 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을 더욱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지 못하게 한다.

2) [i] http://www.worldhunger.org/articles/Learn/child_hunger_facts.htm. 7/15/2011.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때 가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셨다. 한 사람이 염려는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 (6:25)고 직접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손한 것이라는 것을 주목했다. 염려는 사람의 생명을 한 시간도 연장시켜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손한 것이다. 염려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 (6:34)기 때문에 무책임한 것이다.

제자들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에 열중할 필요가 없다. 제자들이 해야 되는 모든 것은 사랑하는 부모처럼 반응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 13:22). "재물의 유혹"은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다. 인간의 경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마태복음 19:16-30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인해준다.

먼저 구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구하거나 (6:33-34)

예수께서는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이 부분의 설교를 마치셨다 --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모든 것들"과 한데 묶어서 그 올바른 순서를 정하셨다. "이방인들"은 이 것들을 먼저 구하며 산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한 여행 가이드가 명소를 관광하는 미국인 그룹에 대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쌌다. 버스들이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관광 버스에서 내린 방문객 중 최소한 1/3이 먼저 박물관 휴게실에 들어가고 박물관의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가장 유명한 전시물로 박물관이 표시를 한 기념품들을 샀다. 그 여행객들은 그러고 나서 박물관 전시장에는 아예 들리지도 않고 버스로 돌아갔다. 그 여행 가이드는 그것이 오늘날 피상적인 미국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다 -- 그들은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저 기념품만을 원한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주신 분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인생의 기념품들을 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고하셨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기념품들은 그 후에 더해질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매일을 살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필요하지 로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들" (6:33)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미국과 다른 세계 사람들의 물질적 수준의 격차를 볼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이 가르침을

조하시키기란 쉽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가난으로 고통을 받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을 위해 어떻게 공급하시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31-46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셨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경험한 자들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통로가 될 것이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이해하는 제자들을 통해 입혀지고 먹여질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들은 내과의사들이다. 그들은 내가 목회했었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비록 그들이 대부분의 교인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들은 평범한 집에 살았고, 오래된 차를 몰았고, 옷을 한 번 사면 수 년을 입었다. 그 부부는 계속해서 교환 학생들에게 방을 제공했고 자선단체의 배 위에서 봉사했고, 우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 그들은 고급 집에서 아주 비싼 물건들로 장식하고, 비싼 옷들과 보석들로 치장하며 고급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평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았는데 그 이유는 먼저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집중된 그들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항상 맨 나중에 오는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소유들을 사용하지 않고, 축적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미리 염려의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적용 및 실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물질의 풍요에 대해 균형잡힌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영적 과업이다. 바울은 롬 14:17절에서 상기시킨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또한 로마서 1: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진술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물질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걷는 삶이다.

제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어떤 편만한 관습이나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에 근거한 삶의 방식을 구현하며 사는 것이다. 제자는 오늘이 그가 어제 걱정했던 내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질문

1. 어떻게 하늘에 보화를 쌓을 수 있는가?
2. 어떻게 영적인 눈을 선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3.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두 가지 주요 염려들은 무엇인가?
4. 당신은 어떻게 적은 믿음에 대응하는 큰 믿음을 나타내는가?
5. 당신의 보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이게 하는가?

[참고]

산상 설교 적용하기

- * 당신의 가장 귀한 소유물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 * 이러한 소유물들을 당신이 샀던 이유들을 써라
- * 이러한 소유물들에 대한 당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생각하라
- * 당신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들과 이 소유물들의 필요를 비교하라
- *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 영적인 차원을 더하라

[제 8 과]	옳은 선택을 하라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7:1-27</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7:1-29</p>	<p>학습주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을 요구한다.</p> <p>탐구질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가?</p> <p>학습목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르침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을 파악한다.</p>

들어가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들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요구한다.

어느 주일오후, 아침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동안 나의 아내와 나는 이웃 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우리 이웃은 잔디깎는 차를 타고 잔디를 깎고 있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갔을 때, 나는 속으로 손 바닥만한 잔디를 깎는데 잔디깎는 차를 이용하다니 얼마나 게으른가 하는 비판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더했다.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 우리는 잔디를 깎고 있는 그 남자의 다리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동안 차에서 정적이 흘렀다. 나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요...?" 라고 말할 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굳이 훌륭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불순종했다고 말해줄 필요가 없었다.

비판, 혹은 이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기 (7:1-6)

마태복음 7장 첫 6개 구절은 영적이지 못한 제자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것에 관련한 것이다. 불행히도 어떤 신자들은 어떤 사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효과를 믿는다. 하지만 한 가지 황금률이 있는데 즉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 7:12).

1절에 있는 예수님의 명령인 "비판하지 말라" 는 16절 상반부에서 명확해진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 를 인식하고 구분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행동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데, 그 이유는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모든 상황들과 사실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께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이유나 동기들을 "판단" 할 수 있다. 보통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죄들을 대면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은가?

제자의 관심과 초점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에 이것을 비유하셨다. 정죄하는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존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느낌으로 인지할 뿐이다.

예수께서 개들이나 돼지들에게 거룩한 것들, 혹은 진주들을 던져주는 것을 경고하셨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영적 진리들을 원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개는 거룩한 것을 소화할 수 없고, 돼지는 진주를 먹을 수 없다. 이 귀한 것들이 개나 돼지들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진리들을 어떤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은 당신을 찢어 놓을 수 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7:7-11)

예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한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예를 드셨다. 만일 흠이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되어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식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들로 공급하시겠는가? "좋은 것들 (선물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통로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준비키워서 예수님의 가르치들에 순종하도록 이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접해주시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1-5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본 뒤, 우리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원어 헬라어는 현재 명령형이며 계속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문자적인 번역은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 될 것이다. 이 세 동사의 사용은 강렬함을 가리킨다.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을 강화시켜준다. 기도로 구하는 것은 인격적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강화시킨다. 제자들의 기도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바울은 빌립보서 4:6에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록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구하는 것에 더하여 신중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 응답의 한 부분이 될 기회를 찾는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10에서 그 영적 원리들에 대해 명백하게 말한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문을 두드리는 것은 구하고 찾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1:5-8절에서 예수께서는 끈기있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한 남자가 그 이웃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할 때까지 두드리는 비유를 드셨다. 또한 누가복음 18:1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한 비유를 드셨다.

하나님께서서는 항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최선의 영적 유익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모의 지혜에 따라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과 관계하기 (7:13-27)

예수께서는 제자가 당신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될 필요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4 가지 대조를 사용하셨다.

1. 좁은 문과 넓은 문 (7:13-14). 좁은 문은 종교적인 규칙들이나 교리적인 정확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좁은 문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안에서 확신을 갖는다. 반대로 교리적으로 완고할 정도로 정확하지만 마음은 돌처럼 차가운 사람들이 있다.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인도한다. 순종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시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순종하는 여행으로 이끄는 것이다.

넓은 길을 선택한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이 하고싶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 넓은 문은 그 생명을 멸망으로 이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결국 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2.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7:15-20).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심중의 선함으로 그분께 순종으로 반응한다. "좋은 나무"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제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들과 다르다. 즉 내적 변화 없이 외적으로만 제자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나쁜 나무"를 대표한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2:33-35절에서 말씀하셨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이름으로 하는 위대한 일들 (7:21-23).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 혹은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대치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실재로 행하는 자이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비판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11:19).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삶의 모든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주여, 주여" 말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귀신을 내쫓고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이목을 끌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분명한 길이다.

4.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7:24-27).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생활방식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석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고전 10:4). 반석 위에 살고 있는 견고한 삶은 영적 강건함과 영적 깨달음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적 강건함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으로 흐르는 것이다.

적용 및 실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표지로 나타낸다.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계와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성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행동을 인도해주는 원리는 12절에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될 것이다.

질문

1. 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비판하는 영이 많은가?
2. 어떻게 개들에게 거룩한 것을, 혹은 돼지들에게 진주들을 던져주는가?
3. 구체적인 기도를 얼마나 계속해야 되는가?
4. 무엇이 삶을 좁은 길로 이끄는가?
5. 왜 "주여, 주여"라는 고백이 구원에 적합하지 않은가?

[참고]

양의 웃을 입은이리들

양의 웃을 입은 이리는 기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겉으로 그 사람은 양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그 사람은 양을 삼키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겉보기에 좋지만 내적으로는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종교적인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다. 유다는 이것에 대해서 유다서 12절과 16절에서 말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p>[제 9 과]</p>	<p>바른 기준에 의한 사역 평가</p>
<p>핵심본문 마태복음 8:18-22</p> <p>배경 마태복음 8:18-22</p>	<p>학습주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인간의 가장 당연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보다도, 예를 들어 문화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집과 가족보다도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놓을 것을 요구하십니다.</p> <p>탐구질문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근본적인 특성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묘사할 수 있다.</p>

들어가기

예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의 삶에 항상 우선이 되는 사람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나의 장인어른이 몇 년 전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우리의 슬픔이 더욱 복합적이었던 이유는 이제 막 아틀란타의 목회지를 떠나서 켄터키의 해로스더그에서 목사로서 섬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켄터키 교회에서 설교 했었다. 슬픔과 동시에 결정을 내려야 했었을 때, 나는 어느날 밤 늦게 돌아왔다. 아내를 포함해서 가족들 모두가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침실의 작은 램프가 켜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보고 펴놓은 듯한 말씀이 있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 9:57-62절이었다. 아내는 그곳에 밑줄을 쳐놓았다.

그 밑줄친 부분은 이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나는 자신의 가족을 잘 돌보는 것과 관련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지나가게 할 수 없었다 (딤후 5:8), 하지만 나의 아내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보다 그것을 더 잘 깨닫고 있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무자비하고 무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따르는 우선순위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의 갈등은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동시에 부딪힐 때이다.

떨어져 있을 시간 (8:18)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을 기적의 관점에서 본다. 예수께서는 나병에 걸린 남자 한 명을 고치셨고 (마 8:1-4)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으로 인해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다 (마 8:5-13). 그는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해서 (8:14-16)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후에, 예수께서는 자신과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중에 몰아쳤던 광풍을 잠잠케 하셨다 (8:23-27). 그들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예수께서는 귀신에 들린 두 명을 치유하셨고 그 귀신들을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 (8:28-34). 예수께서는 9장에서도 다른 이적들을 행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났다: (1) 군중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과 자신이 누구인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불쾌해지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 - 8장, 즉 소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셨을 때 군중들보다 먼저 떠나셨다. 이 장들은 전 장들의 핵심이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군중들을 만나셨을 때 (8:1), 그는 다시 그의 제자들을 군중들로부터 떨어지게 하셨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배에 오르시기 전에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했던 두 사람을 마주치셨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배당이 가득 찬 곳에서 설교하는 것을 꿈꾼다. 어떤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군중들을 목회하는 장소가 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다른 사명을 가지고 계셨고 좀더 인격적인 가르침이 필요했다. 이 제자들은 미래를 위해 기초가 될 사람들이었다. 미래에 성경적으로 살고 성기는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일이다.

예수께서는 군중들을 떠나 있어야 할 시간임을 아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이적들에 더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다 (요 2:24; 4:4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기 전에 두 사람이 그를 멈추게 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한 번 이상 있었던 일이다. 때로 사역의 기회들이 우리의 계획이나 스케줄에 상관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8:19-20)

예수님을 세운 첫 번째 사람은 때로 서기관이라고도 불렀던 "율법 학자"였다. 주목을 끄는 이 사람은 필요한 헌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 사람의 동료들이 후에 예수님을 비판한 주요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 율법 학자는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 예수께서는 그의 헌신을 물리치시거나 혹은 그가 속한

서기관 직업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에게 자신이 헌신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묘사하시기 위해서 "인자"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신 부분이다. 지식이 있는 서기관은 구약의 말씀과 성경적인 자료들에 의해 그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인자"는 예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가장 즐겨하셨던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복음서에서 80번 사용하셨다. 여기에서 그 용도는 마태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의 개념을 연결시키는 것을 따른다 (8:16-17). 인자,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풍부한 의미들은 더 깊은 연구를 위한 기름친 토양이다. 즉 예수께서 "인자"를 사용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더 생각해야 할 것을 던져 주었다.

제자도는 훈육이 요구되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자들은 값을 치러야 한다.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다른 곳에서는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눅 14:28)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8:20절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특히 서기관, 혹은 교사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 서기관의 일하는 장소는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라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었다. 어부들이 그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지만 존경받는 위치의 선생이 자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라. 예수님은 집을 갖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가족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적들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다. 1세기의 많은 교회들은 가정에서 만났다.

올바른 우선순위 이해하기 (8:21-22)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21-22절에서 교훈하신 말씀은 어떤 사람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거나 불명예롭게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은 십계명 중의 하나이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하려 오신 것이다 (마 5:17). 마태복음 15:3-6절에서 예수께서는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는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멈추시게 한 두번째 사람은 "다른 제자"로 언급된다.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멈추게 했던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단지 이 두번째 사람은 열 두 제자 중의 한 명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제자들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그도 역시 예수님께 자신의 헌신을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추진적인, 혹은 결의에 찬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이 제자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대표적인 예이다.

예수께서는 그 남자의 충성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1) 나를 따르라, 그리고 (2) 죽은 자에게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첫번째 명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가장 간단한 계획들 중의 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리더를 따르는 것을 아이들의 게임처럼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죽은 자에게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이었다. 1세기의 일반적인 관습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매장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가족의 성스러운 책임으로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가 예수께 말씀드리는 그 날에 그의 아버지가 죽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 남자는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중에, 더 편한 시간으로 미루기를 원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그를 따르기 충분한 것들을 보았다, 하지만 그의 헌신은 참으로 미약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였다, 하지만 그는 다른 관심사들을 다 처리할 때까지 그의 더 참된 헌신을 미루기 원했다. 예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럴싸한 핑계들을 대고 순종을 피해서도 안된다는 것이었다.

적용 및 실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비슷한 것들을 염려한다. 주거, 가족, 일, 먹는 것은 많은 염려들 중의 몇 가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긍정적으로 그런 염려들을 물리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실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긴장을 마주 대한다. 그 긴장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긴장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평생의 노력이라는 것을 경각시켜 주기 때문이다.

질문

1. 그리스도를 섬기고 공경할 기회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핑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는데 그것이 옮겼던 적은 언제였는가?
3. 우리는 때로 제자의 댓가에 대해서 읽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댓가는 무엇인가?
4.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더욱 깊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5. 만일 당신이 당신의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6.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참고]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교회 회원

17세기 초, 유럽의 재침례파와 영국의 침례교도들은 모두 다시 태어난 성도로 구성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원들은 거듭난 자들, 혹은 위로부터 난 자들 (요 3:3)이었다. 교회는 자연적 출생으로 들어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몸이었다. 그들의 신조는 유아 침례나 유아 세례를 받는 것보다 훨씬 깊은 것이었다. 거듭난 신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훈련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많은 침례교회들 안에 있는 두 개의 커다란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지역주민들이 아니거나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또한 침례 받은 사람들에 대한 통계는 많은 어린이들이 매우 어린 나이에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통계들은 거듭난 교회의

회원들로 볼 수 있는가? 제자로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기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 거듭난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에 헌신하지 않을 수 있는가? 당신은 어떤가? 당신의 교회는 어떤가?

<p>[제 10 과]</p>	<p>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p>
<p>핵심본문 마태복음 9:35-10:15, 24-31</p> <p>배경 마태복음 9:35-11:1</p>	<p>학습주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의 사명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가르침들을 주신다.</p> <p>탐구질문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며 따랐던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내가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평가한다</p>

들어가기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온 맘으로 헌신하도록 부르셨으며 그의 사명과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다.

학교 문제로 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도착했을 때, 여기저기에 학생들이 흩어져 있었다. 전혀 질서라고 찾아 볼 수 없는 혼란의 상태였다. 네 명의 큰 학생들이 내 앞에 성큼 다가왔다. 그들은 각각 대학교 풋볼 태클 선수처럼 보였다. 한 명이 나에게 물었다, "여~ 뭐하슈?" 난 "많은 것들을 하지." 나는 그들에게 교회의 목사였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나에게 또 물었다, "그래, 직업이 뭐예요?"

나는 그 고등학교의 '직업의 날'에 방문했고, 그 학생들은 내가 나의 일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거기에 온 것으로 추측했던 것이다. 그들의 질문은 아마도 그들이 의도했던 것보다 나에게 더 크게 다가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헌신한 것이다. 그것이 나의 부름 받은 직업이다. 나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다. 그 학생들이 일으켰던 두 가지 질문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다: 우리의 직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 받은 것이다. 그는 우리가 그의 교훈과, 우리들이 받은 은사들과, 그리고 기회들과 우리가 보는 필요들에 따라 그의 사명과 사역을 행하기를 기대하신다.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된다 (9:35—10:4)

예수께서는 세상이 그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나무 아래나 예배당 안에서 기다리시지 않으셨다. 그는 오히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 (9:35-44) 하셨다. 마태는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마 4:23)에 대해서 기록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마태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것으로 이전의 내용에 더 했다. 예수께서는 그가 보신 것으로 인해 애통을 느끼시며 동정하셨다. 사람들은 지치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혼동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을 돌보고 인도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안에서 커다란 잠재력을 보셨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이 사람들은 더 많은 법들이, 힘든 짐들이, 그리고 고소하는 손가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23:1-37을 보라).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열두제자들이 그와 같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들은 목자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었고, 군중들이 필요로 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었다.

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기도하라는 그의 부르심은 일꾼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필요하다는 것과 모든 관련이 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함께 행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구절에서 두 개의 비유를 사용하셨다: 들판에 있는 목자들과 일꾼들. 목자는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채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선한 목자를 위해 추수의 들판에서 일하는 일꾼이 된다 (요 10:11을 보라). 그것은 전도를 위한 것이고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들판에서 일하러 가는 것에 대해 의지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일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열두제자들을 함께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영적 능력을 주셨다 (마 10:1). 열두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었다 (막 3:14), 하지만 그들의 보다 큰 목적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제자도의 부르심에 응답했었다 (마 4:18-22; 9:9). 이제 그들은 사명을 받고, 교훈을 받고, 사명을 위한 능력을 부여받았다. 주님께서는 수확을 약속하셨고 보장하셨다 (9:37, 13:1-9, 18-23절을 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요 18:37). 비록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예수께서 육체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사명 가운데 사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다.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을 들었었다 (마 5:13-16). 이제 그들이 배운 대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남았다. 그것은 숨겨지거나 가리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하나의 명령을 하셨는데, '가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제 그들의 것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다 (10:5-15)

우리들은 실험실의 경험과 실험을 했던 것에 익숙하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와 비슷한 것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더 이상 육체적으로 함께 있지 못할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셨다. 그는 그들을 파송하셨다 (10:5).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파송하신다; 하지만 그는 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0:6) 고 말씀하셨다. 어딘가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사역 경험을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문화권 속에서 시작하셨다. 다른 교훈들과 함께 이 교훈은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지상대사명 (28:18-20)으로 마쳤는데,

그것은 이 사명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온 세상을 향한 비전을 품는 것이었다. 바울은 이와 비슷하게 기록했는데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증거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것이었다 (롬 1:16). 온 세상과 다른 문화권을 향한 선교 여행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곳을 잊어서는 안된다.

제자들의 메시지 중의 하나는 "천국이 가까웠다" (마 10:7)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하고 옳은 것을 다 보여주시는 지상의 현현이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제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셨다. 이 인용은 또한 제자들의 확증이었다.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것이고, 치를르 받을 것이고, 이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놀라운 어떤 것을 행하고 계시다는 증거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증거들이었다.

예수님의 이 교훈들은 모든 시대의 규칙들이나 교회의 모든 사명을 위한 규칙들이 아니었다. 어떤 것들은 오히려 반대로 되었다 (누가복음 22:35-38); 하지만 이 처음 제자들에게 의미했던 것이 무엇이었던지 고려하는 것은 21세기의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선포의 방법들과 예배의 방법을 사용해서 "전파" (마 10:8)할 수 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자들을 살리고,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더라도 그 수는 극소수일 것이다. 비록 제자들이 아무 댓가 없이 사역을 했지만 예수께서는 후에 더욱 완전하게 가르치실 때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 (10:10) 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키신다.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10:14)는 여전히 좋은 조언이다. 그 명령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들 모두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할 수 없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만일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혹은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연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것이 아니라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고 그 다음 마을로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그만 두고 마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은 신실한 제자로서, 사랑의 메신저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도전하시고 격려하심 (10:24-31)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은 놀라운 일이다 (마 10:24-25). 그것은 우리의 목표일뿐만 아니라 큰 격려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사상을 열두제자에게 제자가 되는 것의 실재와 댓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 예수께서는 비난하는 자들이 자신을 사탄이라고 했으므로 제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그보다 덜한 비난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확실히, 우리들은 모든 긍정적인 면에서 예수님같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세대의 제자들도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 안에서도 핍박의 시기들로 인해 놀라서는 안된다. 예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마 10:16-23)같다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이전에 팔복 설교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핍박과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충성스러운 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실 그대로 말씀하셨다. 비난자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조차도 십자가형을 받을 때까지 몰아세웠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핍박이나 십자가형같은 것을 견뎌야 되는 상황이 있을 필요가 없기를 바랄 뿐이지만 예수께서는 분명 경고하셨다. 나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

마태복음 10:26-31절은 두려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 말라." 비록 그 훼방자들이 많을지라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 할 이유를 보지 못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하셨다, 가라, 전하라, 그리고 치유하라. 그 말씀은 분명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이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은밀히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이제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왔던 사람은 감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는 감추어질 필요가 전혀 없다. 진리는 궁극적으로 이겨낼 것이고 편만해질 것이다.

마태복음 10:28절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을 밝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움'은 성경에서 위대한 경이감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움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맞추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이시다 (롬 14:12).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예수께서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물리쳐야 할 대상이다. 야고보는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사탄이 달아날 것이라고 기록했다 (약 4:7).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과 영혼의 운명을 통치 하신다.

비록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하나님의 눈에 특별한 존재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적용 및 실천

마태복음 11:1절은 "예수께서 열 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라는 구절로 마태복음 두 번째 주요 교훈 부분을 마친다. 예수께서는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 하셨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수께서 이 가르침들을 주신 이유는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느낌은 중요한 것이다. 감정과 느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적으로 말해서 당신은 느끼는 사람인가, 아니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당신은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따르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 없이 들어왔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알고 싶다면, 그의 명령을 따르라. 그 계명들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당신의 사명)에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을 인도해줄 것이다.

질문

1.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의 연장선 위에 있는 당신 자신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 같은가?

2.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돈에 대한 훈련을 야기시키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에 연루되어 있는가?
3. 과거의 실패나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4. '용기는 두려움으로부터 자란다' 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돕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가?

[참고]

제자들과 사도들

예수께서는 열두 남자를 선택하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주요 역할을 하게 하셨다. 그들은 제자와 사도로 불린다. 3년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 뒤에서 두드러지게 언급되는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이다. 열두제자들에 대한 나중의 이야기는 확인할 수 없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는 열두제자들을 가리키는 가장 상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마태는 그 명사형을 한 번 사용했었다 (마 10:2). 그 동사형은 마태복음 10:5절과 10:16절에서 발견되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사명을 받고 파송된다.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다른 사도들이 언급되는 것을 발견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맛디아(행 1:26), 바울, 바나바 (행 14:14), 그리고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 (갈 1:19; 또한 고전 9:5절을 보라). 오직 한 번 사도의 수를 열둘로 제한시키는 것을 본다 (행 1:12-26).

오늘날, 우리는 두 역할이 모두 필요하다: 제자도 (순종하며 배우는 자) 와 사도 (거짓 사도 운동인 피터와그너의 신사도 운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자로서의 일반적 의미). 둘 모두를 함으로써 예수께서 시작하셨던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다.

[제 11 과]	믿음은 따르는 것이다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16:13-17, 21-26</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16:13-26</p>	<p>학습주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p> <p>탐구질문 당신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가?</p> <p>학습목표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표현하도록 결정한다.</p>

들어가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것에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대학 때 친구인 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 16:24)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 친구는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바닥에 바퀴를 달아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걸어 다닐 때 등에 메고 다녔다. 폴은 각 도시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반응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폴이 이상하다고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폴이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이유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폴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적, 감정적인 희생을 감수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폴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나뭇가지의 독특한 방식이기도 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 모두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데는 희생이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이 희생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특권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르고, 재정적인 희생을 치르게 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의 생명마저 희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는 준비를 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헌신과 희생이 요구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길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16:13-14)

이 복음서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알려진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갈릴리 호수의 북북서 지역에 위치한 이 지방은 주로 이방인들이 대대로 살아오고 있었다. 헤롯 대왕의 세 아들 가운데 하나인 빌립은 이 지방을 다스렸다. 빌립은 16살에 왕위에 올라 37년을 다스렸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리스 로마의 중요한 도시였다; 거주민에는 이방의 시리아인과 그리스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나중에 빌립보가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가이사라라는 이름의 다른 도시와 이 도시를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방신 제사로 유명했다. 바알, 그리스의 신인 판, 그리고 황제는 이들 신과 우상 가운데 하나였다. 이 도시에는 거짓 종교를 위한 수많은 신전과 기념물이 있었다. 이렇게 이방 우상의 형상들이 가득한 환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물어보셨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지 않았다; 그는 보통 자신을 인자라고 언급했다. 제자들이 대답한 이름은 모두 선지자였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위대한 선지자일 것이라고 믿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라고 믿었다.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한 상황에 우셨다. 제자들이 열거한 각 예언자는 메시아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16:15-17)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대답한 후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 물으셨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대답을 해야 하는 날이 온다고 가르친다(롬 14:12). 한 그룹의 결정이 한 사람의 결정을 절대로 대체할 수는 없다.

제자들의 대변자 역할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중요한 진술을 하였다. 비록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고백에 앞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지만(요 1:49; 마 14:33), “그리스도” 라는 호칭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데 사용된 첫 번째 시기였다. 이 호칭은 그리스어로 기름부음 또는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구약에서 이 호칭은 35번 이상 사용되었으나, 오로지 왕, 제사장, 선지자들처럼 보통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 예수님은 이 호칭을 받아들였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감추었지만, 겸손한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진술했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조각이나 기념물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에게 속해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모든 가르침과 경험의 최고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계시로 인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갖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올바른 대답에 대한 보상 (16:18-20)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그리스어로 페트로스)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는 바위라는 뜻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바위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바위라고 사용하신 단어는 페트라인데, 이것은 큰 바위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의 기초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 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다(마 16:19).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이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고 계셨다. 복음의 문이 모든 열방에게 열리고 나면 열쇠가 필요 없어질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의 권세와 형벌에서 풀리게 된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묶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라 (16:21-23)

마태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지게 한 다음에 자신의 목적이 알려지게 하였다고 보여주고 있다.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이 체포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알려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17:22-23; 20:17-19; 26:2). 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혁명적 자유투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확증의 말로 자신감이 충만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해로움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의 사제지간에서는 제자가 감히 자신의 스승님을 꾸짖는 것에 가까울 정도로 바로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 라고 불렀을 때(16:22), 단지 존경하는 인물에게 표현하는 호칭으로 사용했던 것 같다. 이것은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님을 권능자가 아니라 인간적 권위를 가진 분으로 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만큼의 믿음을 갖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고통 당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만큼의 믿음은 없었다. 만약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고통을 당하는 때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욥이 자녀들과 가축들을 잃고, 또 자신의 몸이 증기에 뒤덮혔을 때 아내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말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욥 2:10).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모든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해야 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다. 사탄은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앞선 대화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셨고,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선언하였다. 바로 뒤에 베드로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서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려고 하였다. 베드로는 제자가 얼마나 빨리 적에게 설득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예수님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 것인지 말씀하셨다.

대답을 들어라 (16:24-26)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1세기의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나타내는 어두운 이미지였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고통스러우면서 부끄럽게 죽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로마인들은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처형 방법을 사용하였다.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은 죄인은 종종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자기 등에 지고 가야했다. 죄인이 도착하면 병사들은 십자가에 죄인을 못 박아서 공중에 들어올렸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떤 사람이 지고 가야만 하는 괴로움이나 문제라는 뜻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거절, 부끄러움, 고통, 그리고 죽음과 교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거는 제자도의 희생을 강조하셨다. 천국은 세상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나라다. 사람에게 일반적인 것이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하셨는데,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때를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예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매달려 조정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잃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구원과 정의를 경험하게 된다.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자신의 영적 존재를 거래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바꾸겠느냐”라는 단어는 값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16:26). 예수님은 사람이 구원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비교하여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축복을 지적하였다. 세상이 제안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얻는 부유함에 이를 수 없다.

적용 및 실천

매일 우리는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라고 듣게 된다.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다.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가?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포기하거나 또는 바꾸도록 요구한다.

질문

1.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2.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했을 때 칭찬하셨다. 바로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이라고 불렀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사탄에게 설득당할 수 있는가를 보면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
3.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슨 방법으로 자신을 부인하겠는가?
4. 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지 않는가?
5.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들었는가?

[참고]

종교적 통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16:21). 이들은 다 함께 예루살렘의 통치 지도자 그룹을 이루었다. 장로들이라는 호칭은 나이가 들고 경험이 풍부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가운데 지도자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유대를 통치하는 귀족 계급은 대제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대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의 일상사를 통치하던 네 개의 중요한 가문에서 배출되었다. 그들은 성전의 제사장, 경호대장, 그리고 제물을 담당하는 책임이 있었다. 서기관은 율법선생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율법을 해석하였다. 그들은 주로 바리새인들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었다.

도심

마리오는 서른네 살 때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곧바로 그에게 사역의 소명을 주셨다. 마리와 그의 아내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자신들이 어디에서 사역해야 하는지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심으로 돌아가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곳은 자신들이 떠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곳이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심 사람들에게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당신은 마리오와 그의 아내에게 도심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언을 주겠는가?

[제 12 과]	참되어라, 은혜를 보여라, 겸손하라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23:1-12</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23:1-36</p>	<p>학습주제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믿음을 참됨, 은혜로움, 겸손함으로 실천해야 한다.</p> <p>탐구질문 왜 종교적인 사람들은 때때로 위선적이고, 강압적이고, 고집불통-즉 참된 제자도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가?</p> <p>학습목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내 인생에서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방법들을 확인하도록 한다.</p>

들어가기

예수님은 많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예수님은 참된 제자는 은혜와 겸손을 나타낸다고 가르쳤다.

라이언은 자신의 새 교회에서 섬기기를 원했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유년부 학급을 맡아서 가르쳐보라고 하셨다. 그가 처음으로 가르치게 된 주일은 추수감사절 전 주일이었다. 아이들을 알기 위해서 라이언은 아이들에게 자신들에 대해서 소개해보라고 하였고, 감사하고 있는 일 한 가지를 말해보라고 하였다.

한 여자 아이가 자신은 다른 아이들보다 가난하다고 이야기했다. 그 아이는 자기 이름을 아비가일이라고 했고, 자기는 학교에서 무료 아침급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라이언은 눈물을 감추기가 힘들었다. 라이언은 아비가일이 조그만 방 하나로 된 아파트에서 엄마와 살고 있고, 그 아이의 엄마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두 개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이언은 그 아이의 엄마와 날짜를 정하고 추수감사절 음식을 아비가일의 아파트에 배달하기로 했다. 라이언이 음식을 다 옮겼을 때, 아비가일이 엄마에게 라이언 선생님이 예수님이냐고 묻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엄마는 “왜 그런 질문을 하니?” 하고 대답했다.

아비가일은 “엄마가 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선생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이지요?” 하고 말했다.

엄마는 “글세 아가야, 이 분이 예수님 같은데” 하고 대답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라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차이는 종교지도자들에게 일반 백성을 압도하는 능력을 가져다주었다. 이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규칙과 규정을 부여하였다.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이 누리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고 백성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기만 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랍비는 회당에서 가르칠 때 의자에 앉았는데, 이것은 권위 있는 자리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회당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돌로 만든 의자가 고고학적 증거로 발견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권위임을 인정하셨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규율은 인정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들의 부패함을 드러낸 것이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의 예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릇된 이유로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의로움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어서 그들은 내적인 성품과 성실성을 무시하였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순종하길

기대하신다.

바리새인들은 이중적인 기준으로 살았다.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것들은 가볍게 하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더하여, 바리새인들은 구문 율법도 전수하였다. 그들은 이 율법을 모세의 율법인 토라에 해석하고 적용하였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더 많은 율법을 첨가했던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직접 하셨다. 그는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려고 오셨다.

과시하지 마라 (23:5-7)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비난했다. 만약에 파파라찌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바리새인들은 늘 그들 주변에 얼쩡거렸을 것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들은 조명과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들이 입는 옷조차도 자신들의 거만함을 반영했다. 성구함은 가죽으로 된 작은 상자였는데, 남자들이 아침 기도를 할 때 자신의 왼 팔과 이마에 달았다. 상자 안에는 양피지에 기록한 성경이 들어 있었다. 이 전통은 신명기 6:8절과 11:18절을 지키는 것이었다. 성구함에다가 남자들은 네 개의 옷술이 달린 긴 예복을 입었다. 이 옷술은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려는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이 옷술이 달린 옷을 입었다(신명기 15:38절을 보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였다(마 23:5b).

예수님은 또한 바리새인들을 스스로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려 한다는 이유로 비난하였다. 연회장의 주인은 손님들을 지위와 중요성에 근거하여 자리의 위치를 정할 것이다. 가장 높은 명예로운 자리는 주인의 오른쪽 자리였다. 두 번째 명예로운 자리는 주인의 왼쪽이었다.

회당에서 사람들은 긴 의자 또는 바닥에 앉았다. 일부의 긴 의자 또는 일반 의자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지정되었다. “모세의 자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을 위한 자리였다(23:2)

너희에 대한 호칭을 취하지 마라 (23:8-10)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의 선생들”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자리를 배정하는 것 이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들의 욕망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랍비”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다. “랍비”라는 말은 나의 위대한 분이라는 뜻이다. 랍비는 율법의 큰 스승이며 일반적으로 학교의 지도자였다. 학교는 성경의 첫 다섯 권인 모세의 율법, 즉 토라를 배우는데 집중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특정한 호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랍비, 아버지, 그리고 선생님. 랍비의 제자는 나중에 랍비가 되려고 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나 제자인 것이지 결코 선생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언제나 선생님이시며, 궁극적인 권위자이시다. 제자는 동등하며 형제이다.

“아버지”라는 말은 명예, 권위 그리고 존경을 나타낸다. 이 말은 랍비 법원의 수장과 학자와 랍비로 추정되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사용되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영적인 아버지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모든 제자가 형제라면, 그들은 공통의 영적인 아버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만 속한 권위의 자리에 사람들을 놓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선생님”이라는 말은 개인 교수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개인 교수는 학생에 대하여 권위를 가졌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구하면 안 되었다. 비록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영적 선생님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 홀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개인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라고 격려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호칭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상 (23:11-12)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문화와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된다. 세상은 우리 밑에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로 성공을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위대한 자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한 이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마 20:26-28).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명성으로 위대함을 만들어내길 원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자신들에게 사람들을 지배하게 해준다고 느끼는 권력에 목말라하는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권위를 갖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은 겸손하기를 원했다.

지도자의 세상적 모델을 받아들인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내세움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노력하는 제자는 겸손케 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바치는 제자들은 칭찬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셨다. 헛된 영광은 잠깐 동안 유효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의 위치를 빼앗은 것에 더하여 그들의 역할도 없애버리셨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제자들을 천국에서 아들과 딸로 부르신다. 이들 동일한 형제자매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서로서로 동등함으로 기쁨을 누린다.

적용 및 실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것에는 평생이 걸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다.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과 희생을 배워야 한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앞에 놓을 때 경험하게 된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의 특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잘못 받아 들이거나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분처럼 되어간다. 당신은 배우자 또는 가까운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더욱 그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과 관계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이 진실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더욱 그분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종교 행위를 하는데 붙잡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를 갖는 기회를 놓쳤다. 제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더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모습에서 보이게 된다.

질문

1. 최근에 바리새인 처럼 살기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당신이 한 행동과 태도는 무엇이었나?
2. 최근에 제자라기보다는 당시의 문화를 더 많이 생각하여 유혹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3. 당신이 목격한 종교적 거만함의 예는 무엇인가?
4.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랍비, 아버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였는가?
5. 당신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6. 최근에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참고]

“성구함”

굴착기사가 쿨란이라는 고대 유적지에서 땅을 파는 동안에 성구함이라고 하는 작은 가죽 상자를

발견했다. 이 장소는 고고학자들이 사해사본을 발견했던 동굴에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유명해졌다. 한 상자는 대략 1인치 길이에 4칸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4개의 작은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다. 두루마리는 양피지로 만들어졌고 출애굽기 13:9, 16; 그리고 신명기 6:8; 11:18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다른 상자는 대략 1/3 인치 길이에 한 칸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곳에는 하나의 두루마리에 4구절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 이 성구함은 왼쪽 팔에 붙이는 것이었다. 랍비들이 상자를 너무 크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랍비를 너무 경건하게 보이지 않게 했다. 성구함을 몸에 지니는 것은 신명기 6:4-8절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그들의 이마와 팔에 성구함을 붙여두라고 지시했다.

사례 연구

모간은 어린이 사역자다. 최근에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그는 사무실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목사님이라고 부르길 원한다. 그녀는 또한 목사님이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친절하고 푸근하지만, 사무실 주변에서는 차갑고 요구가 지나치다는 것을 목격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직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모간은 어떻게 이 새로운 목사님에게 은혜와 겸손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제13과]	제안이 아닌 명령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28:16-20</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28:16-20</p>	<p>학습주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p> <p>탐구질문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의 명령에 대해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진지하다면 무엇을 하겠는가?</p> <p>학습목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설명하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실천해 나갈 행동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한다.</p>

들어가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제자를 삼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 제자는 그들의 말로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다른 이와 나눔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한다.

바리새인이 한 번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말씀하셨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22:34-39). 이 두 계명을 “위대한 명령”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명”으로 여기는 다른 말씀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9-20). 아주 흥미로운 것은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사명이 손과 손을 맞잡듯이 서로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들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 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인생을 이야기 식으로 대처하는 다섯 개의 강연을 기록하고 있다. 마태는 그것들을 제자도의 핸드북으로 정리를 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르치는 방법들을 1세기 자자들에게와 앞으로 모든 세대의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이상의 것을 하신 것을 기록했다; 마태는 그의 가르침을 모델화 했다.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 속에서 제자들을 삼는 것에 집중을 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그를 따르는 자들로 제자를 삼으라는 대화를 강조했다. 이 과의 본문 안에 성경 구절들은 참 제자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태어난 것을 보여 준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28:16-17)

마태는 열한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기로 하신 갈릴리의 산으로 간 것을 보고 한다. 이 대목은 처음으로 제자들을 “열한 제자”라고 불렀다(28:16). 이 시간에 가롯 유다는 자살을 했지만 아직 맛디아가 그를 대신해서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사도행전1장).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모든 제자들은 도망쳤다. 그러나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버리는 죄를 범했다.

지금은 열한 제자가 다시 모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 전에 앞으로 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그들 앞서서 갈리리로 가 계실 것이라 말씀하셨다(26:32). 제자들에게 천사와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만날 것임을 말씀하셨다(28:7,10). 제자들이 모인 산이 어느 산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다만 갈리리에 있다는 것만 안다. 물론 그 장소는 제자들에게 생소한 곳이었을 것이다; 갈리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역을 하던 지방이었다. 그 곳은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불렀고(4:15) 더욱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화해 주었다. 하나님의 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이끄신 것이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신 것을 기록했다.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나타나셨다(28:9-10), 그리고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방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알고 있다(요한복음20:19).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벌써 보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알았다. 열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그를 경배했다.

마태복음 28:17에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이 없었기에 의심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열한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들을 들을 때의 반응은 믿기 위해서 보통 증거를 요구한다. 마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오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암시하고 있을 수 있다(고린도전서 15:6)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보냈다(28:18-20)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들은 전체의 메시지를 과감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것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제자들을 삼으라고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년을 그들을 훈련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 시간을 보내셨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동일한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의 미션은 갈릴리 영역을 훨씬 넘어서 땅 끝까지 가라는 사명이었다.

마태는 대부분의 그의 글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할애를 했다. 그것은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음을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권세는 파워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계셨고,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권세를 위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의 권세를 확인한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헬라어 단어의 ‘가라’는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의도는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제자를 삼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인생 자체의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를 삼을 것을 원하신다.

“제자를 삼으라”는 위대한 사명에서 기초가 되는 명령이다. 이 단어만 명령형이다. “가서”“침례를 주고” “가르치라” 의 단어들은 분사형이고, 그것들은 제자를 삼기 위한 과정들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면 제자들은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는 사람이며 침례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며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서약하는 것이다. 이 서약에 더하여 새로운 제자들은 가서 제자를 삼도록 보내지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이 방법으로 성장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것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서 기꺼이 행동한다는 것이다. 제자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을 아는 진리로 인도를 했다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28:20).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시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없애셨다. 주님은 성별, 인종, 종교,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장애물들을 깨뜨렸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나 바리새인이나 다른 선지자들을 구원을 위해 쳐다보지 않았다.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을 발견한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면 제자들은 그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한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 천사들은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1:23) 라고 이름했다. 위대한 사명을 주실 때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의 말씀을 반복하셨다.

이 약속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선포되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다고 믿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는 모든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하신다. 주님은 새로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주님은 새로운 제자가 성숙하게 되는 곳에 계신다. 교회가 성장할 때에 거기 계신다. 주님은 열한 제자 스스로가 성숙하여 질 때에도 거기 계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분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공급하신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영망진창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 주님의 약속은 진리를 거부하는 고집스런 사람들에게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지상에서 친밀하게 걸어 다니셨듯이 현재와 미래에서도 친밀하고 성실하게 함께 걸으신다.

적용 및 실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시작하셨던 미션을 계승하도록 보내셨다. 다른 계획이 없다. 모든 제자들은 같은 명령을 받았다-“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인생 전반에 걸치는 일이다. 제자로 삼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기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자문해 보아야 하는 질문들이 있다: 누가 나를 가르치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누구를 가르치는가?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의 멘토가 있고 멘토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 제자를 삼는 가장 좋은 모델은 경험하고,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간증을 갖는 것이며 그것을 다른 믿는 자에게 나누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돕는 것이다.

질문

1. 만약에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부르신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로 삼으라고 강조하시는가?
2.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가?

3.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좀 더 헌신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정이나 변화가 필요한가?
4. 당신의 교회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역들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5. 당신은 당신의 교회가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참고

Z. N. Morrell

1835년에 테네시 출신의 Z.N.Morrell 이라는 설교자가 텍사스에 도착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테네시의 날씨를 피해서 좀 더 따뜻한 텍사스 이주하게 되었다. 텍사스에 도착한 Morrell 목사는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으며 텍사스에 복음을 전했다.

샘 휴스턴이 그의 직무를 떠나려고 하던 1839년은 아주 어려운 때였다. 멕시코와 미국 인디언들과 텍사스인들은 서로 전쟁 중에 있었다. 웨싱턴과 텍사스의 교회들은 분열되었다. 지치고 긴장되고 실망한 Morrell 목사님은 라 그렌지 외곽으로 이사해서 교회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R.E.B.Baylor 라는 사람이 타운에 나타났는데 Plum Grove 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그의 협조를 얻었다. Baylor 는 Morrell 의 힘과 용기가 되어 주었다. 드디어 1839년 3월에 그는 처음 회심한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것은 미래에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열려진 문의 역할을 했다. Morrell 목사는 텍사스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새로운 땅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¹.

제자

우리는 제자들을 삼는 제자들이 되어 한다. 여기 제자를 만드는 과정이 있다.

- *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제자로 삼을 계획을 글로 써보라.
- * 제자들로 정확한 결정을 해서 앞으로 전진 할 수 있도록 도우라
- * 제자들로 앞으로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를 맛보게 하라
- * 당신이 가르치는 것에 모델이 되도록 하라
- * 많은 시간을 제자들을 세우는데 사용하도록 하라
- * 제자들과 당신의 삶을 나누도록 하라
- * 매일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Z. N. Morell, FlowersandFruitsintheWilderness(SaintLouis:CommercialPrintingCompany,1872),53-56.

<p>[성탄절 수업]</p>	<p>베들레헴으로 감</p>
<p>핵심본문 누가복음 2:1-20</p> <p>배경 누가복음 2:1-20</p>	<p>학습주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순종하는 행동으로 인도한다.</p> <p>탐구질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부르셨나?</p> <p>학습목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나의 삶으로 어떻게 순종할지를 결정한다.</p>

들어가기

예수님은 구원자로 태어나심과 그리스도 주이심을 부모님과 동물들과 처음 순간을 나누셨다. 주님을 처음 본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첫 사람들이 되었다.

아기의 탄생은 쉽지 않다. 길고 어려운 9개월을 끝내고 엄마는 아기를 낳는다. 최근 10년 동안은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에 아빠가 함께 하며 산모의 진통을 코치해 주기도 한다. 다른 가족들도 그 방에 함께 한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기쁨의 눈물과 축복이 함께 한다. 산모실 안에 모든 것들은 아기를 낳는 경험이 청결하며, 쉬우며, 가능한 행복하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예수님의 탄생은 편안하지 않았고, 위생은 최악이었다. 그의 첫 날 밤은 동물의 먹이통에서 보내셔야 했다. 보통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산파나 경험 있는 여자들의 도움을 받지만 성경에는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가족의 도움도 없었고, 가족이나 친구들도 그 순간에는 없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경험을 약속하셨고, 그들은 새로운 식구들을 보았다.

예수님의 탄생(2:1-7)

예수님의 부모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출신인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다. 황제들이나 총독들도 그들을 몰랐다.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에서 그들을 알 수도 있었지만 당시 그들은 여행을 하거나 숙박을 할 상태가 되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역사 속에서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하셨다.

누가는 침례 요한을 기다리는 엘리사벳과 스가랴를 방문한 천사에 대하여 기록했다.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는 자”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 엘리사벳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누가복음1:36). 그녀는 나이가 많이 들어 임신을 했고, 그녀의 임신은 기적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격려해 주었다. 마리아도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1:26-38),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처녀인 그녀를 통해서 태어 날 것이라 말해주었다. 마리아는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에 대한 마리아의 고백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1:38).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요셉을 방문하여 그의 배우자가 될 신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었다(마태복음 1:20-23).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언제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천사의 방문 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나사렛에서 남편과 아내로 살았다(마태복음1:24-25).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의 자리에 놓고 있다. 어거스투스 황제는 기원전 30년에서 기원후 14년까지 지배했다. 그는 줄리어스 황제의 조카 손자였다. 퀴리누스는 세금의 목적을 가지고 호구조사의 실행하였고 세상 기록에 의하면 그는 B.C. 6년에 시리아를 지배했던 기록이 남겨져 있다. 마태복음에서 헤롯왕과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이 B.C.4 년 죽기 전으로 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원전예(before christ)에 태어난 것으로 착각한다. 이것은 달력을 1세기 후로 표기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신약성경 기록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고 베들레헴이 고향이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80마일을 여행할 이유가 없었지만 요셉이 다윗의 형통이므로 마리아가 그렇게 해야 했다(누가복음 3:20-37). 로마의 업무와 세금이 이스라엘에게 달갑지 않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그들이 하는 일에 순응하고 순종했다.

다윗으로 1000년이 흐른 후에 다윗의 자손이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성취됐다. 마리아와 요셉은 적당한 숙소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처음 자녀였고, 가족에는 적어도 네 명의 형제들과 두 명의 자매들이 있었다(마태복음 13:55).

예수님의 탄생은 간단하게 기록되었다: 마리아는 “첫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혔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눅2:7). 후에 이것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표적이 되었다. 아기를 싸는 천은 구석으로 길고 큰 천을 사용하였다. 예수님은 이불을 덮었고 길고 좁은 천을 덮었다. 마굿간이나 먹이통은 목자들의 표적이었지만 그 곳에서 아기를 찾는 곳은 아니었다.

누가복음 2장7절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 탄생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나중에 사역 속에서 그분을 어떻게 받아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문자적으로 아무 방도 없었고 여인숙 주인은 아무런 부정적인 반응도 없었다. 이 말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가 자주 크리스마스 축제 속에서와 매일의 삶속에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임에도 때로는 예수님이 없고 축제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축소시키고, 축제 속에서 제외시키고 때로는 그분이 거할 공간도 없다.

천사들을 듣기(2:8-14)

그 소녀는 비록 일곱 살이었지만 루트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반해 버렸다. 그것은 산타 크로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다. 소녀는 창 밖 계단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 소녀는 거기에 앉아서 내리는 눈을 뿌려지게 바라보고 있다. 소녀의 아버지는 믿지는 않았지만 다정한 아버지가 말했다 “루아! 산타 크로스는 네가 잠자리에 들어가기 까지 올 수가 없단다. 그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란다.” 루트는 말했다 “아빠 조용, 나는 산타크로스를 찾고 있지 않아요; 나는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아빠도 나와함께 들어보지 않겠어요?”

천사의 소리를 듣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일이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번의 천사의 출연이 나온다.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양들을 아끼는 목자들이었다. 갑자기 밤하늘은 빛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었다. 그 문구는 설명과 함께 오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을 비추는 하나님의 광채였다. 목자들은 겁을 먹었을 것이다. 그들을 나무라지 말자. 자주 천사가 나타날 때에 처음으로 하는 말이 “두려워 하지 말라”(누가복음 2:10) 였다. 만약에 내가 목자였거나 다른 사람이었다면 천사는 나의 두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어야 했을 것이다.

천사의 메시지는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각 요소들을 조심스럽게 알아보라.

- * “두려워 하지 말라”(2:10)
- *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2:10) 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몇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 * 탄생은 예언대로 ‘다윗의 마을’에서 일어났다.
- * 예수님은 ‘구원자’다(2:11)
- * 예수님은 ‘그리스도’다(2:11)
- * 예수님은 ‘주님’이시다(2:11)

누가복음 2:11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표현한다: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다. 마태복음은 또한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임마누엘”로 표현했다(마태복음 1:18,23). 한 단어로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 “구원자”라는 이름은 구약의 예수와 같은 의미인데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 하신다”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메시아(히브리어) 또는 그리스도(헬라어)와 같은 뜻이다. 약속하시고 기쁨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지상에 오신 것이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다스리는 자나 주인이라는 특별한 뜻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시저가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거절했기에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유일한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시다.

목자들이 메시지에 따라서 행동할 때에 아기의 정체에 대한 확실한 표적을 받았다: 말구유 안에 있는 아기. 이러한 사람은 불행한 시작이었다.

갑자기 하늘의 천사들이 합류했다. 얼마나 멋있는 하늘의 찬양대인가! 그들의 찬양은 두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1) “가장 높은 곳에서”라는 예수님의 탄생에 하늘에서 찬양과 기쁨이: 그리고(2) “지상에서” 좋은 일과 평화. 평화의 실체는 나라와 교회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흠뻑 젖어지지 못했고, 그러나 목적만은 여전하다- 하나님과 화평, 사람들과 화평

좋은 소식은 간직하기에 너무도 좋다(2:15-20)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평범하고 모든 사람이 특별하지만 하나님은 목자들을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으로 선택하셨다. 목자의 이미지는 시편 23편에 나오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선한 목자와 동일 시 하신다(요한복음 10:11). 목자들은 성경 안에서 풍부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나 다윗 같은 목자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렇지만 1세기에는 직접 목자의 일을 하는 것 자체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더럽고, 냄새나는 직업이었고, 다른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목자가 되었다. 흥미롭게도 주님은 그들에게 처음 나타났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고 그들은 그것을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늘의 찬양대가 떠날 때에 목자들은 말했다 “베들레헴으로 가보자”(누가복음 2:15).

그래서 하늘의 찬양대가 떠날 때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급하게 서둘렀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를 찾았다. 그들은 보았다. 그들의 믿음은 확인되었고, 소식은 그들 자신들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도 좋았다. 처음 증인은 처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전파했다” 사람들은 놀랐다. 목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간 후에 그들이 보고 들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누가복음이 더했다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누가복음 2:20).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약속하시면 그분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 시간이 차면 하나님은 나타내신다. 당신도 하나님의 약속과 가르침에 대하여 비슷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목자들의 경배하는 가운데에 말씀은 마리아의 다른 그림으로 채색하신다. 심대 엄마는 그녀의 임신 기간 중에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다. 그녀는 아마도 흥분된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지만 그녀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2:19). 그녀는 놀랐고 생각했다. 마리아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서 인생을 배우고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도구가 되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소중하게 다루었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아마도 그녀가 의사인 누가에게 나누고 누가는 그것을 기록했을 수도 있다.

적용 및 실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농구를 시작했을 때에 나와 아내는 2,3,4학년 아이들을 12월에 있었던 연습과 게임에 차로 데려다 주었다.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노래는 무엇이니? 즉시로 하나가 ‘징글벨’ 이라고 대답했고, 다른 아이는 ‘루돌프’라고 대답했다. 한 아이가 물었다 ‘당신은요?’ 크리스마스 때만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사랑하심은’ 좋아한다고 대답해 주었다. 한 아이가 물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 아이는 그 날 밤에 대답을 받았고 내 아내와 나는 이런 농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회와 특권을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았다.

우리의 주변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당신은 그들이 얼마나 적게 아는지 놀랄 것이다. 사람들은 그분이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우리들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아주고 인생을 상담해 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의 도구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낮은 목자들을 그 옛날 사용하여 주셨듯이 오늘 당신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

질문

1.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가?
2. 당신이 만약 마리아나 요셉의 부모였다면, 마리아의 임신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겠는가?
3. 당신은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매력 없는 직장을 가지고 있고 1세기의 목자들보다 더 냄새 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받겠는가?
4. 당신은 목자들과 같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는가?
5. 이 문구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 시키겠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나는 할 수 있다?
6. 천사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뜻이다. 당신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참고]

처녀가 임신함

마리아가 말하길 자신은 처녀라고 했다(누가복음 1:34). 천사도 요셉에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인용으로 입증해 주었다(마태복음 1:23). 이사야 7장 14절의 나오는 히브리 단어로는 처녀나 젊은 여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헬라어 구약성경은 처녀로 사용했다. 마태복음 1:25절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처녀의 임신은 이방신이 무력한 심대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대신 처녀의 임신은 우주의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탄생의 과정을 관여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대답은 성경의 처음 다섯 단어로 대답할 수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 성경은 기적들과 예언들을 더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라. 기적적인 관념과 처녀의 임신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예수님의 탄생에 더 하실 수가 있다.